

아시아지역

국가위험

분석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 아시아지역 국가위험 분석



# 목 차

## ■ 아시아지역 국가위험 분석 /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I. 국가위험: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	3
II. 기존의 국가위험 정량자료 .....	5
III. 아시아지역 국가위험: 지역수준 .....	8
IV. 아시아지역 국가위험: 개별국가 총점비교 .....	14
V. 아시아지역 국가위험: 개별국가 지표비교 .....	17
VI. 결론을 대신하여 .....	67
<부록> 지역별 국가리스트 .....	72

## ■ 국가위험(Country Risk) 평가의 최근 방법론 / 조양현(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부실장)

I. 서론 및 연구배경 .....	77
II. 정부채권 신용평가기관의 평가기법 .....	77
III. 국가위험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기법 .....	83
IV. 요약 및 결론 .....	91



## 아시아지역 국가위험 분석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 I. 국가위험: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국가위험(country risk)이란, 특정 국가에 투자하였을 때 그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투자자산의 가치가 그 국가의 경제적, 비경제적 상황변화로 인하여 손실을 입게 될 리스크를 말한다. 이러한 리스크를 정치적 위험(political risk)라고도 한다. 투자와 거래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의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투자와 거래 대상국의 국가위험을 정확히 알고 투자와 거래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위험에 대한 분석은 주로 국내외 신용평가기관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신용평가기관으로는 Moody's, Standard & Poor's, Fitch를 들 수 있다.<sup>1</sup> 이들에 의한 분석은 공통적으로 개별 경제적 행위자의 입장에서 국가위험을 정의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그 목적이 개별 경제행위자의 투자 수익과 가치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과실을 최대화하는 것에 있다.

우리 기업과 국민의 활동범위가 세계화함에 따라서 국가위험은 더 이상 '개별 경제행위자'만의 관심사가 될 수 없으며, 국가위험에 대한 평가나 대응을 '시장'에 전담시킬 수만은 없다. 개별 기업이나 개인의 시각에서만 아니라 국가적 관점에서 우리의 교역 상대국의 국가위험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영업이나 투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이해관계의 손실 가능성—가장 포괄적으로는 국익의 손실 가능성—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Makowitz의 portfolio selection 이론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기업과 국민이 노출되어 있는 국가위험을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집합적'으로—즉 portfolio로—평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 '개별' 기업에 입장에 있어서는 국가위험이 높은 국가에 투자하거나 그런 국가와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모두 국가위험이 낮은 국가에만 투자나 거래를 한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일부 기업은 국가위험이 높은 국가와 거래, 투자하고, 일부 기업은 국가위험이 낮은 국가와 거래, 투자하는 것이 국가적 관점에서는 더 바람직할 수 있는

<sup>1</sup> 이들 기관에 의한 평가방법에 대한 소개와 문제점에 관하여는 조양현, “국가위험(Country Risk) 평가의 최근 방법론”을 참고하라.

#### 4 아시아지역 국가위협 분석

것이다. 아울러 경제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정치적, 외교적 이해관계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국가위협이 평가되어야 한다.

#### 이론의 빈곤과 측정의 난이성

국가위협을 정확히 평가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누구라도 공감할 것이지만, 실제로 국가위협을 분석하거나 구체적 대응책을 모색할 경우에 의견의 통일은 기대하기 힘들다. 각자가 다른 방법으로 국가위협을 평가하고, 각기 다른 식으로 국가위협에 대처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양성”의 근본적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이론의 빈곤으로, 정확히 ‘무엇이,’ ‘어떻게,’ 그리고 ‘왜’ 국가위협을 발생시키는지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sup>2</sup> 달리 말하면 원인변수, 종속변수 그리고 인과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론이 부재한다. 따라서 대안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부문에서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현상-예컨대 부패나 난민발생-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전체 또는 그 중에 특히 중요하거나 자료가 풍부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정, 측정하여 그 값들을 임의적으로 가중치를 주고 합산하는 것으로 국가위협 평가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국가위협의 정확한 정의와 국가위협을 발생시키는 원인변수와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이론이 있었다면 이러한 소위 ‘세탁물 리스트(laundry list)’ 식 접근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국가위협을 정확히 측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위협에 관한 이론의 발달이 필수적이다. 둘째로 측정 또는 정량화의 난이성이다. 만약에 국가위협에 관한 이론이 확립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변수 리스트를 갖고 같은 현상을 측정한다고 가정해도 각기 측정치가 다를 수 있다. 특히 만약 ‘대중적 불만’이나 ‘정당성 결여’와 같은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현상을 국가위협의 원인변수의 하나로 측정한다고 하면 연구자마다 다르게 측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근본적’ 어려움과 더불어

---

<sup>2</sup> 불분명한 정의, 불충분한 이론 등의 문제에 관해서 다음을 참고하라. Gourevitch, Alex, “The Myth of the Failed State: Intervention and Third World Sovereignty”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Honolulu, Hawaii, March 2005.

‘현실적’ 어려움으로 자료와 정보의 부족도 들 수 있다. 예컨대 앞서 언급한 부패나 난민의 경우 그 정확한 규모나 수준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기 힘들 것이다. 국가위험분석이 필요한 국가면 국가일수록 그 국가에 대한 자료와 정보가 부족하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신속히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논문에서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이론의 빈곤, 측정의 난이성, 그리고 자료와 정보의 부족—을 해결할 수도 없고, 그러한 문제의 해결을 이 논문으로 목적으로 삼고 있지도 않다. 이 글의 목적은 훨씬 겸손한 것으로, 나름대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만들어진 기존의 정량화된 국가위협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에 대한 국가위험분석을 시행하는 것이다.

## II. 기존의 국가위협 정량자료

경제행위자들은 오래 전부터 거래 또는 투자 대상국의 국가위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정량화 작업을 실시하였지만 비경제 행위자가, 특히 정부차원에서 정량화된 국가위험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미국을 예로 보면 미국정부가 국가위험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 첫 번째 계기는 소련의 붕괴로서 구 소련권 국가의 잇따른 붕괴에 대해 사전 예측도, 사후적 대처도 만족스럽지 못하였다는 문제의식에서 ‘국가실패’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가위험에 대한 연구를 촉발시킨 두 번째 계기는 911 사태로서 멀리 떨어진 취약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권력의 와해와 사회적 혼란도 반미주의의 발생과 테러집단의 발흥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미국의 핵심적 이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인식이 발생하였다.<sup>3</sup> 미국의 경우 국가위협 정량자료는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sup>3</sup> 이런 인식은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른 서구국가에서도 발견된다. Prest, Stewart, John Gazo, and David Carment, “Working out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Fragile States: The British, American and German Experience,” Paper presented on the conference on Canada’s policy towards fragile, failed and dangerous states, November 25, 2005. 국가실패와 테러위험의 관계에 관하여 회의적인 견해로 다음을 참고하라. Patrick, Stewart, “Weak States and Global Threats: Fact or Fiction?,” *The Washington Quarterly*, Spring 2006, pp. 27-53.

첫째는 군사안보적인 것으로 실패한 국가, 취약한 국가를 안보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그러한 국가들을 염두에 두고 군사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에 국가위협 정량자료들이 사용된다. 또 다른 용도는 그와 정반대 되는 것으로 국가위협 정량자료를 사용하여 실패한 국가, 취약한 국가를 파악하고 그러한 국가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경제적 지원과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sup>4</sup> 이러한 대조적 활용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자료라도 사용방법이나 목적이 상당히 다를 수가 있다. 상반된 대응방법이지만 상호보완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같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위협에 관한 관심은 지금까지 주로 북한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북한의 불안정성, 변화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sup>5</sup> 미국의 국가위협 자료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국가위협에 관한 자료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나 군사적 대처에 사용될 수도 있고,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인도적 원조에 대한 정책을 입안, 수행하는 데에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쉬운 점은 국내에서는 북한 이외의 국가의 국가위협에 대한 정량적 자료도 축적되어 있지 않고, 외국에서 개발된 국가위협 정량자료도 안보, 외교, 국제개발, 인도적 지원 등의 목적을 위해 별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현실은 앞에서 언급한 국가위협연구의 한계—이론적 빈곤, 측정의 난이성, 자료와 정보의 부족—등에 기인하는 바도 클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한계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도 많다. 외교안보정책입안이 주로 정성적 자료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관행 때문에 기왕에 있는 국가위협 정량자료도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sup>6</sup>

<sup>4</sup> USAID, *Measuring Fragility: Indicators and Methods for Rating State Performance, Performance*, Washington, D.C.: USAID, 2005; Carment, David, Yiagadeesen Samy, and Stewart Prest, "State Fragility and Implications for Aid Allocation: An Empirical Analysis,"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25, pp. 349-373.

<sup>5</sup> 지난 수년간 통일부 용역과제로 북한의 불안정성과 변화가능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려는 작업이 수행되었다.

<sup>6</sup> 국가실패에 관한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결합하는 것의 장점에 관하여 다음을 참고하라. Goldstone, Jack, "Us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odels in Forecasts of Instability," *U.S. Institute of Peace Special Report*, No. 204, March 2008.

## 국가위험 지수의 실례

정부기관에서부터 대학, 싱크탱크, 잡지사<sup>7</sup>에 이르는 여러 기관에서 국가위험 –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의 취약성(fragility, weakness, vulnerability)이나 실패(failure) – 를 체계적으로 측정하려고 시도하였다.<sup>7</sup> 그 중에서 대표적인 지수를 아래에 소개한다. 비록 지수의 이름이나 지수 작성기관이 다르지만 각 지수는 근본적으로 같은 개념을 측정하려는 시도이고, 대개의 경우 지수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가 중복되기 때문에 평가결과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성을 보이지 않는다. 특히 Somalia 등 극단적인 국가의 경우에는 대개의 지수들이 공통적 평가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들 지수들을 차별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지수작성의 연속성에 주목한다. 다수의 지수들이 비연속적으로 – 어떤 경우는 1회만 작성되기 때문이다.

<Brookings Institution - Index of State Weaknesses in the Developing World<sup>8</sup>>

Brookings Institution은 141개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경제, 정치, 안보, 사회복지 4개의 영역에서 각 5개의 지표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을 5등급으로 분류하였다. Brookings Institution 자료의 문제로는 2005, 2006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국가위험자료만 있고 그 이후에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으며 작성에 사용된 자료들이 모두 2차 자료라는 점이다.

<Foreign Policy誌 / Fund for Peace Failed States Index<sup>9</sup>>

Foreign Policy誌와 Fund for Peace가 2005년부터 매년 발표해오고 있는 Failed States Index는 조사대상국가도 가장 포괄적이고, 매년 업데이트되

<sup>7</sup> 뒤에서 설명하지만 국가위험과 국가취약성, 국가실패가 정확한 동의어가 아니다.

<sup>8</sup> Rice, Susan & Patrick Steward, *Index of State Weakness in the Developing World*,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2008.

<sup>9</sup> 이 지수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지난 6년간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웹 주소는 참고문헌에 포함되어 있다.

고 있어서 국가위협 정량자료 중 가장 대표적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수는 사회, 경제, 정치/군사 분야의 12개 지표를 측정, 합산하여 총점을 내고 있다. 지수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자료는 각종 언론보도, 보고서 등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들 자료를 검색한다.

<George Mason University Center for Global Policy - State Fragility Index<sup>10</sup>>

Political Instability Task Force 와 CSIS의 취약국가 선행연구에 기반한 지수로서 각 국가를 정치, 경제, 사회, 안보분야에 있어서 ‘정당성’과 ‘취약성’을 평가하여 등수를 평가한다. 공개된 자료와 지표를 근간으로 해서 1995, 2001, 2007, 2008, 2009 년 지수가 작성되었다.

<USAID - State Fragility Index와 Peace and Security Index<sup>11</sup>>

이 두 지수는 2006년 USAID는 경제, 정치, 안보, 사회분야에서 국가의 효과성(effectiveness)와 정당성(legitimacy)의 33개 지표를 측정하여 국가의 취약성을 평가하려고 시도였다. 미국 정부기관이 타국을 비교, 평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2006년 이후는 지수개발이 중단되었다.

이상의 자료들은 조사 기간, 조사 대상국, 구체적 조사 방법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기초 자료’이지 국가실패에 관한 ‘분석’은 하지 않거나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기초 자료를 이용하여 아시아 지역 국가위협에 관한 일련의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 III. 아시아지역 국가위협: 지역수준

이 글의 주장은 글로벌 통상국가와 기여외교를 지향하는 국가로서 우리나라가 국가위협을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집합적”으로 평가,

<sup>10</sup> Marshall, Monty, and Benjamin R. Cole, *State Fragility Index and Matrix* 2009, Center for Systemic Peace, <http://www.systemicpeace.org/SFImatrix2009c.pdf>

<sup>11</sup> USAID, *Measuring Fragility: Indicators and Methods for Rating State Performance*, Washington, D.C.: USAID, 2005.

대응하자는 것이다. 그러한 집합적, 포괄적 접근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이 논문에서는 Foreign Policy誌 / Fund for Peace의 Failed States Index를 사용하여 아시아 지역 국가위험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런데 Failed States Index가 반드시 ‘포괄적’으로 국가위험을 측정하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이론의 여지가 있다. 우선 경제적 리스크를 측정하기에는 상대적으로 경제분야의 지표가 부족하고, ‘국가실패’ 내지 ‘국가 취약성’이 반드시 ‘국가위험’과 동일한 것인지 단언하기 힘들다. 하지만 경제 지표의 부족이라는 문제는 신용평가기관이 발표하는 국가위험을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보완이 가능하고, 국가실패나 국가 취약성과 국가위험의 동일성 여부는 국가위험에 대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Failed States Index의 3개 영역/12개 지표

Social Indicators	Mounting Demographic Pressures
	Massive Movement of Refugees or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Creating Complex Humanitarian Emergencies
	Legacy of Vengeance Seeking Group Grievance or Group Paranoia
	Chronic and Sustained Human Flight
Economic Indicators	Uneven Economic Development along Group Lines
	Sharp and/or Severe Economic Decline
Political Indicators	Criminalization and/or Delegitimization of the State
	Progressive Deterioration of Public Services
	Suspension or Arbitrary Application of the Rule of Law and Widespread Violation of Human Rights
	Security Apparatus Operates as a “State Within a State”
	Rise of Factionalized Elites
	Intervention of Other States or External Political Actors

표에서 보듯이 총 3개의 영역에서 총 12개의 지표가 있고, 각 지표마다 최저 0점, 최고 10점의 점수를 부여한다.<sup>12</sup> 국가위험이 높을수록 Failed States Index

<sup>12</sup> 왜 전체 영역이 사회, 경제, 정치 3개 분야이고, 지표의 수가 왜 총 12개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론적 근거는 없다.

## 10 아시아지역 국가위험 분석

Score는 점수가 높아서, 최소 0점, 최대 120점까지 나올 수 있다.<sup>13</sup> 참고로 2005년 조사에서 북한의 점수는 120점 만점에 95.7 점이었고 중국은 72.3 점이었고, 한국이나 일본은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2010년 조사의 경우 북한은 120점 만점에 97.8점, 중국은 83점, 한국은 41.3점, 일본은 31.3점 그리고 미국은 35.3점을 각각 기록하였다.

Failed States Index를 사용하여 이 글에서는 구체적으로 아래의 작업들을 수행할 것이다.

- 전세계적 국가위험 수준과 추이
- 아시아 지역과 타 지역의 국가위험 비교
- 아시아 세부 지역의 국가위험 수준과 추이
- 아시아 지역 국가 별 국가위험 추이와 구성

### (1) 전세계적 국가위험 수준과 추이

조사가 처음 실시된 2005년에는 76개의 국가만이 포함된 반면 그 이후는 조사대상국가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조사에는 총 177개국에 포함되었다. 조사대상국가가 연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각 년도의 국가위험 수준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연도별로 조사대상국가가 달라진 점을 감안하여 2005년도 이후 전세계적 국가위험 수준과 추이의 파악은 두 가지 방법으로 행해졌다. 첫째로 첫 조사에 포함된 76개 국가 집단을 기준으로 해서 국가위험 수준을 2010년까지 측정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조사대상의 변화로 오는 왜곡을 줄일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고 위험집단, 예컨대 국가위험도가 상위 10 내에 드는 국가들을 선정하여 이들의 국가위험의 수준이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살펴 보는 것이다.

---

<sup>13</sup> 아울러 왜 지표 점수를 단순 합산하여 총점을 내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이론적 근거는 없다.

2005년 조사대상국의 Failed States Index Score 추이

Year	Mean	Std. Dev.	Min.	Max.	Obs.*
2005	88.68	8.17	69.5	106	76
2006	87.14	11.60	63.1	112.3	75
2007	86.53	12.16	57	113.7	75
2008	86.87	12.57	56.8	114.2	75
2009	88.17	12.40	59	114.7	75
2010	87.95	12.36	58.8	114.3	75

\* 2005년 이후 조사대상국의 수가 75국인 것은 2005년에는 포함되었지만 그 후 조사에서 누락된 국가가 각 해마다 1개국씩 있기 때문이다.

2005년 조사대상국을 기준으로 2010년까지 Failed States Index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과 최대값을 비교한 위의 표에 따르면 지난 6년 간 전세계적으로 국가위험의 수준은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세상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는 ‘종말론적’ 우려나 2008년 이후 글로벌 경제 위기가 국가의 취약성을 증가시켰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참고로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치인 87, 88점 대에 있는 아시아 국가의 예로서 라오스(88.7점)와 캄보디아(88.7점)를 들 수 있다.

2005년 조사대상국뿐만 아니라 2010년 조사대상국 전체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평균은 71.87점, 표준편차는 23.15점, 최소값은 18.7점, 최대값은 114.3 점으로, 2005년 조사대상국만 분석하였을 경우보다 평균과 최소값은 낮아지는 대신 표준편차는 증가하였다. 이는 2005년 조사에 한국과 일본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에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2005년 조사는 상대적으로 국가위험수준이 높은 국가군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위 10개국의 Failed States Index Score 추이

Year	Mean	Std. Dev.	Min.	Max.
2005	102.23	2.42	99.2	106
2006	106.88	3.73	99.8	112.3
2007	107.25	4.54	101	113.7
2008	108.54	4.11	103.7	114.2
2009	109.29	3.88	104.1	114.7
2010	109	3.72	102.5	114.3

한편 각 해 조사 상위 10개국의 국가위험 수준을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계속 증가하였다. 2005년과 2006년 사이에 약 4점이 뛰었고 그 이후는 1점 전후로 매년 증가하여 왔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최대값이 120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리고 상위 10개국의 경우 표준편차가 3~4 점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지난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상위 10개국의 국가위험의 수준이 적지 않게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즉, 고 위험 국가들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2010년 조사에서 국가위험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로부터 10번째로 높은 국가를 차례대로 적으면 다음과 같다: Somalia, Chad, Sudan, Zimbabw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Afghanistan, Iraq, Central African Republic, Guinea, Pakistan.

이상의 분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2005년 이후 지금까지 국가위험의 수준은 2005년 조사대상국 70여 개국을 기준으로 거의 증가하지 않았지만, 각 년도 상위 10개국을 기준으로 보면 적지 않게 증가해왔다는 것이다. 국가위험이 높은 국가들만을 본다면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 (2) 아시아 지역과 타 지역의 국가위험 비교

아래의 표는 각 지역별로 그 지역 내에 위치한 국가들의 Failed States Index Score의 평균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같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조사시기에 따라서 포함된 국가군이 다를 수 있다. 특히 2005년의 경우 조사대상국가들이 국가위험이 높았던 국가들이라서 2005년의 평균치를 그 이후의 평균치와 비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표는 (1) 지역별로 국가위험 수준이 차이가 나며 (2) 그러한 차이는 지속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지역별 Failed States Index Score 평균\*

	Asia	Oceania	Middle East	Africa	North America	Latin America	Europe	CIS*
2005	86.19	n.a.	87.14	93.42	-	87.63	86.53	84.48
2006	78.07	42	78.30	86.24	28.8	71.69	44.71	82.75
2007	78.54	63.4	74.82	85.67	29.35	69.80	44.05	82.29
2008	79.10	63.71	75.73	86.31	29.55	69.59	43.99	82.15
2009	80.65	63.57	76.5	88.13	30.85	70.44	45.00	83.13
2010	80.39	63.7	76.28	88.35	31.6	70.06	44.70	81.93

\* 각 지역별 국가 리스트는 부록을 참조.

\*\*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소련의 해체로 독립한 10개 공화국의 연합체.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포함.

이 표에 의하면 아시아는 지역 평균이 최소 78.07점에서 최대 86.19점으로 아프리카와 CIS 보다는 국가위험 수준이 낮지만 중동이나 중남미를 포함한 그 외의 어느 지역보다는 국가위험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2010년 전세계 국가수준 평균은 71.87점이기 때문에 아시아는 전세계 평균보다 국가위험 수준이 높다. 다소 의외로 보일 수 있는 이러한 결과는 아시아 지역 전체의 국가들이 모두 국가위험이 높은 것이 아니라 아시아 일부 지역의 국가들이 국가위험이 높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는 아시아를 세부지역으로 나누고 국가위험의 수준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 (3) 아시아 세부 지역의 국가위험 수준과 추이

아시아 세부지역 별 국가위험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2005	84	84.52	83.02	86.84
2006	61.92	76.46	81.46	90.91
2007	61.77	77.84	81.43	88.71
2008	62.07	77.68	81.25	90.37
2009	63.92	79.25	81.81	91.17
2010	63.35	79.99	80.56	90.64

\* 2005년 조사는 국가위험 수준이 높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조사대상에 국가위험 수준이 낮은 국가들도 포함된 그 이후 년도의 조사와 결과를 직접 비교하기 곤란.

\*\* 동아시아: China, Japan, North Korea, South Korea

동남아시아: Brunei Darussalam, Cambodia, East Timor, Indonesia, Laos,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Vietnam

중앙아시아: Kazakhstan, Kyrgyzstan, Mongolia, Tajikistan, Turkmenistan, Uzbekistan (이들 국가는 CIS 회원국으로 앞의 표에서는 아시아와 별도로 분류되었음.)

남아시아: Bangladesh, Bhutan, India, Maldives, Nepal, Pakistan, Sri Lanka

위의 표가 보여주는 것은 (1)아시아 내에서도 세부지역에 따라 국가위험이 차이를 보이고 (2)그 차이가 지속된다는 것이다. 2005년의 조사를 제외하고 국가위험은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의 순서로 수준이 높아지며-즉 Failed States Index score는 동아시아가 제일 낮고, 남아시아가 제일 높으며-이러한 양상은 2006년에서부터 가장 최근의 조사가 행해진 2010년까지 해마다 동일하게 반복된다.

이러한 결과가 단순히 특정 세부지역에 한두 개의 국가위험 수준이 높은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지역의 공통적 특성을 반영한 것인지는 흥미로운 질문이다. 각 지역에는 최소 5개, 최대 11개국의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두 국가가 지역 평균을 크게 좌우하기 힘들고, 2005년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세부지역에 국가위험이 높은 국가들이 빠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지역간 국가위험 수준의 차이는 특정 국가의 존재보다는 각 세부지역 내 공통적 특성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이점은 궁극적으로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

#### IV. 아시아지역 국가위험: 개별국가 총점비교

##### <동아시아>

	China	Japan	North Korea	South Korea
2005	72.3		95.7	
2006	82.5	28	97.3	39.9
2007	81.2	28.5	97.7	39.7
2008	80.3	29.7	97.7	40.6
2009	84.6	31.2	98.3	41.6
2010	83	31.3	97.8	41.3

이 표에 의하면 중국과 북한-특히 북한의- 국가위험이 세계평균(2010년 현재 71.87점)보다 높고, 한국과 일본은 크게 하회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지속적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경우는 고 위험 국가(중국과 북한)와 저 위험 국가(한국과 일본)가 공존하는 지역 내부가 이질적인 지역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동남 아시아>

	Brunei Darussalam	Cambodia	East Timor	Indonesia	Laos
2005	-	-	-	87	91.5
2006	-	85	-	89.2	87.9
2007	71.2	85.7	94.9	84.4	87.2
2008	68.5	85.8	93.8	83.3	88.7
2009	68.1	87.3	97.2	84.1	89
2010	67.6	88.7	98.2	83.1	88.7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Vietnam
2005	73.6	93.4	83.9	-	77.4	84.9
2006	66.1	96.5	79.2	30.8	74.9	78.6
2007	65.9	97	83.2	33	76	77.8
2008	67.2	100.3	83.4	33.3	75.6	74.6
2009	68.9	101.5	85.8	33.8	79.2	76.9
2010	69.2	99.4	87.1	34.8	78.8	76.6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만 국가위험 수준이 세계평균보다 낮고 나머지 국가는 세계평균과 비슷하거나(Brunei Darussalam, Malaysia, Thailand, Vietnam) 상회하고 있다(Cambodia, East Timor, Indonesia, Laos, 특히 Myanmar, Philippines).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경우와 같이 국가별 위험의 수준은 연도별로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밑줄을 친 수치는 전후 년도 간에 눈에 띄는 점수차가 발생한 경우인데 측정상의 오차인지 실제로 국가위험이 변화한 것인지 분석이 필요하다.

<중앙 아시아>

	Kazakhstan	Kyrgyzstan	Mongolia	Tajikistan	Turkmenistan	Uzbekistan
2005	78.3	80.4		86.7	76.5	93.2
2006	71.9	90.3	58.4	87.7	86.1	94.4
2007	72.3	88.2	58.4	88.7	87.5	93.5
2008	72.4	88.8	57.8	88.9	86.2	93.4
2009	72.5	89.1	61.9	90.3	84.3	92.8
2010	72.7	88.4	60.1	89.2	82.5	90.5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우 세계평균보다 낮은 Mongolia와 세계평균과 유사한 Kazakhstan 외에는 세계평균을 상회하는 Kyrgyzstan, Tajikistan, Turkmenistan, 특히 Uzbekistan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각국의 위험수준은 밑줄 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연도와 상관없이 대동소이하다.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밑줄을 친 수치는 2005년과 2006년 사이에 눈에 띄는 점수차가 발생한 경우로 차이의 원인이 측정상의 오차인지 실제로 국가위협이 감소(Kazakhstan과 Kyrgyzstan의 경우) 또는 증가(Turkmenistan의 경우)한 것인지 연구가 필요하다. 우선 2005년과 2006년 사이에 조사대상국뿐만 아니라 측정방식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만약 차이가 측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국가위협의 수준이 Kazakhstan과 Kyrgyzstan의 경우에는 감소하고, Turkmenistan의 경우에는 증가하였다면 - 즉 국가위협이 변화하는 방향이 달랐다면 - 국가위협이 증가한 Turkmenistan에 대한 투자나 거래가 늘더라도 국가위협이 감소한 Kazakhstan과 Kyrgyzstan에 대한 투자와 거래를 증가시킴으로써 위협을 ‘상쇄’시켜서 한국이 안는 국가위협의 불변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국가위협에 대한 ‘집합적’ 접근이 갖는 장점으로서 국가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남아시아>

	Bangladesh	Bhutan	India	Maldives	Nepal	Pakistan	Sri Lanka
2005	94.3	92	69.5	-	89	89.4	-
2006	96.3	87.9	70.4	-	95.4	103.1	92.4
2007	95.9	86.4	70.8	81.1	93.6	100.1	93.1
2008	100.3	85.4	72.9	80.4	94.2	103.8	95.6
2009	98.1	87.3	77.8	78.8	95.4	104.1	96.7
2010	96.1	87.3	79.2	78.3	95.4	102.5	95.7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India를 제외하고는 세계평균보다 고 수준의 국가위협을 보이는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다. India도 연도에 따라서 세계평균을 초과하기도 한다. 그리고 다른 지역이나 세부지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위협 수준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밑줄을 친 수치는 앞에서 언급된 바 있듯이 예외적으로 전후 년도간에 점수차가 발생한 경우로 측정상의 오차인지 실제로 국가위협이 감소(Bhutan) 또는

증가(Nepal, Pakistan)한 것인지 분석이 필요하다.

흥미롭게도 국가위협이 현저하게 감소 또는 증가한 후에는 그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후의 안정성’이 주는 함의의 중의 하나는 국가위협의 증가를 막기 위한 조치들은 사전적으로 취해져야지 일단 국가위협이 증가하고 난 다음에는 커다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시아를 멀리 중앙아시아, 남아시아까지 포함하게 넓게 정의할 경우 아시아 지역 내에는 세계평균보다 국가위협 수준이 낮은 국가는 소수만 존재하며 나머지 국가들은 국가위협의 수준이 세계평균과 유사하거나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는 일반적으로 역내 국가들의 국가위협 수준이 높은 지역이다.

## V. 아시아지역 국가위협: 개별국가 지표비교

지금까지 분석은 Failed States Index의 총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왜 3개의 영역에서 총 12개의 지수가 선정되었고, 왜 각 지수의 값들이 단순 합산되어 총점이 산출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단순 합산한 총점이 높으면 반드시 국가위협의 수준이 높고, 총점이 낮으면 반드시 국가위협의 수준이 낮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단순합산이 아니라 가중합산이 총점을 내는 맞는 방법이라면 단순 합산한 총점과 국가위협의 수준은 반드시 비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3개 영역과 12개의 지수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포함되어야 할 영역이나 지수가 빠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무엇을 측정하고, 어떻게 합산하여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Jack Goldstone에 의하면 국가실패가 일어나는 경로는 아래의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한다.<sup>14</sup>

<sup>14</sup> Goldstone, Jack, "Pathways to State Failure,"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25, pp. 285-296.

국가실패의 다섯 가지 경로(pathway)

- (1) Escalation of communal group conflicts
- (2) State predation
- (3) Regional or guerilla rebellion
- (4) Democratic collapse
- (5) Succession or reform crisis in authoritarian states

Escalation of communal group conflicts란 국가가 무능(state ineffectiveness)하거나 국가에 의한 배타적인 조치들 때문에 특정 인종집단(들)이 국가의 권위를 받아들일만한 유인이 없어서 국가실패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Rwanda나 Yugoslavia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다. 국가실패의 경로로서 state predation이란 권력체제가 엘리트 집단이나 제도에 피해를 줄 정도로 자기 이득을 차리다가 국가권위를 붕괴시키는 연합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Nicaragua나 Philippines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Regional or guerrilla rebellion은 지역적 집단이나 경제적 계층이 국가에 의해서 배제 당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국가의 무능함(state ineffectiveness)으로 인해서 지지자를 확보하는데 성공할 경우에 발생하는 국가실패이다. Democratic collapse란 신흥 민주국가가 처음에는 대중의 지지를 받았지만 국가의 실효성(effectiveness)을 감소시키는 파벌주의가 발생하며 국가의 무능함이 지속되어 군이 개입하거나 정당성을 상실하는 경우를 말한다. Nigeria나 Nepal이 그런 경우라고 한다. Succession or reform crisis in authoritarian states는 (민주적 절차가 아니라) 정치지도자의 능력이나 인기에 정당성을 의존하는 정부에서 권력계승 위기가 발생하여 정치지도자가 실권하거나 권위가 약화될 경우 발생한다. Indonesia나 Soviet Union이 그러한 예이다. 이상의 다섯 가지 경로(pathway)가 국가실패의 모든 경우를 망라하고, 각각의 경로는 서로 겹치는 일이 없이 명확히 구분되는지는 단언하기 힘들다. 하지만 Goldstone의 연구는 국가실패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좋은 시발점을 제공한다.

Goldstone의 연구가 국가실패지수에 주는 함의는, 총점이 같다고 영역별, 지표별 점수분포가 다르면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총점은 같더라도 국가실패의 5가지 경로와 관련이 많은 영역/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그 외의 영역/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그 반대 경우의 국가, 즉 국가실패 경로와 관련이 적은 영역/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그 외의 영역/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국가에 비해서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즉, 국가위험을 국가실패의 가능성으로 본다면 단순히 총점뿐만 아니라 영역별, 지표별 점수분포도 또한 중요하다.

문제는 Goldstone의 5개 ‘경로’와 Failed States Index의 12개 ‘지표’ 간에 정확한 대응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래는 각 국가실패 경로와 그에 관련이 많다고 생각되는 국가실패 지표를 본 연구자의 판단 하에 대응시켜 본 것이다.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경로와 지표간에 대응관계가 불완전하고, 연구자에 따라 다른 식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더욱이 전체 12개 지표 중 국가실패 경로와 잘 대응되지 않는 지표가 5개나 있다는 사실은 국가실패 지수개발과 국가실패 유형연구가 따로 진행되어 왔다는 증거이다.

#### <국가실패 경로와 지표: 불완전한 대응관계<sup>15</sup>>

##### (1) Escalation of communal group conflicts: GG, PS

<sup>15</sup> DP: Mounting Demographic Pressures

RI: Massive Movement of Refugees or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creating Complex Humanitarian Emergencies

GG: Legacy of Vengeance Seeking Group Grievance or Group Paranoia

HF: Chronic and Sustained Human Flight

UD: Uneven Economic Development along Group Lines

ED: Sharp and/or Severe Economic Decline

DS: Criminalization and/or Delegitimization of the State

PS: Progressive Deterioration of Public Services

HR: Suspension or Arbitrary Application of the Rule of Law and Widespread Violation of Human Rights

SA: Security Apparatus Operates as a “State Within a State”

FE: Rise of Factionalized Elites

EI: Intervention of Other States or External Political Actor

- (2) State predation: HR, UD
  - (3) Regional or guerilla rebellion: SA, UD
  - (4) Democratic collapse: FE
  - (5) Succession or reform crisis in authoritarian states: DS
- \* 대응되지 않은 지표: DP, RI, HF, ED, EI

Goldstone의 국가실패 경로에 대응되는 국가실패 지표를 기준으로 할 때 아시아의 각국들은 어떤 유형의 국가실패에 얼마나 취약할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지표들의 연도별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는 개별 국가의 특정 지표가 갖는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실패 지표 추이 (전세계 평균)

Year	GG	UD	DS	PS	HR	SA	FE	Sub-total
2005	6.7	8.9	8.8	6.4	8.0	7.4	8.8	55
2006	5.9	6.9	6.3	5.9	6.0	5.6	5.9	42.5
2007	5.8	6.8	6.4	5.8	5.9	5.6	5.9	42.2
2008	5.9	6.8	6.4	5.8	6.0	5.6	6.0	42.5
2009	6.0	6.9	6.5	5.9	6.0	5.7	6.1	43.1
2010	6.0	6.8	6.4	5.8	6.0	5.7	6.1	42.8

\* 각 지표는 10점 만점이고, 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

앞에서 살펴본 다른 표에서와 마찬가지로 2005년과 2006년 이후의 값에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2006년 이후부터는 각 지표 별로 연도와 상관없이 값이 안정적으로 나타난다. 2006년 이후 sub-total을 살펴보면 70점 만점에 최소값은 42.2 점, 최대값은 43.1점으로서, 개별 지표나 지표의 합계를 기준으로 볼 때 Goldstone이 말하는 다섯 가지 유형의 국가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은 조사기간 중 전세계적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실패 지표 추이 (아시아 평균)

Year	GG	UD	DS	PS	HR	SA	FE	Sub-total
2005	6.5	9.0	8.5	5.8	8.3	7.5	8.4	54
2006	6.8	7.1	7.1	6.2	7.0	6.4	7.0	47.6
2007	6.8	7.0	7.4	6.1	7.1	6.5	7.0	47.9
2008	6.9	7.0	7.4	6.2	7.2	6.6	7.1	48.4
2009	7.0	7.2	7.5	6.4	7.2	6.7	7.2	49.2
2010	7.0	7.1	7.4	6.4	7.3	6.6	7.3	49.1

\* 각 지표는 10점 만점이고, 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

아시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005년과 2006년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차이가 나타나며, 2006년 이후는 어느 지표이건 대체로 일정한 값이 유지되는 경향이 보인다. 2006년 이후 sub-total을 살펴보면 70점 만점에 최소값은 47.6점, 최대값은 49.2점으로서, 아시아에서 또한 Goldstone이 말하는 다섯 가지 유형의 국가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아시아의 지역평균과 전세계 평균의 비교인데, 아시아 평균이 전세계 평균보다 1점 정도까지 높은 경우가 많다. (10점 만점에서 1점이 높으면 차이가 적지 않은 것이다.) 비교적으로 말하면 아시아는 Goldstone이 말하는 다섯 가지 유형 모두에서 전세계 평균보다 국가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 단순 합산한 총점과 국가실패와 관련된 지표를 합산한 경우에도 모두 그 결과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개별 국가의 경우를 살펴 보기로 하자.

### 〈동아시아〉

#### China

Year	DP	RI	GG	HF	UD	ED	DS	PS	HR	SA	FE	EI	Total
2005	6.8	5	7.4	6	9	0.5	8.6	2.9	8.9	7	8.4	1.8	72.3
2006	8.5	5.1	8	6.6	9.2	4.5	8.5	7.3	9	5.5	8	2.3	82.5
2007	8.7	5.1	8	6.5	9	4	8.5	6.5	9	5.3	7.5	3.1	81.2
2008	8.8	5.1	7.8	6.3	9	4	8.3	6.6	8.9	5.2	7	3.3	80.3
2009	9	6.8	7.9	6.1	9.2	4.5	8.5	7.2	8.9	6	7.2	3.3	84.6
2010	8.8	6.6	8	5.9	9	4.3	8.3	7	9	5.8	7.2	3.1	83

\* 이 표에서 Total은 12개 지표의 합계.

Escalation of communal group conflicts과 관련된 지표는 GG와 PS이다. GG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0점, 아시아 평균은 7.0점인데, 중국의 경우는 8.0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각기 2점, 1점이 높다. PS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5.8점, 아시아 평균은 6.4점인데, 중국의 경우는 7.0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각기 1.2점과 0.6점이 더 높다. 물론 이렇게 2점, 1점, 1.2점, 0.6점이 더 높은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언하기 힘들다. 하지만 소수민족의 문제가 악화될 것에 대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오늘 날의 중국 현실과 이들 지표의 값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은 지표와 현실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State predation과 관계된 지표는 HR과 UD이다. HR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0점, 아시아 평균은 7.3점인데, 중국의 경우는 9.0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각기 3점, 1.7점이 높다. UD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8점, 아시아 평균은 7.1점인데, 중국의 경우는 9.0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각기 2.2점과 1.9점이 더 높다. 이는 state predation 방식을 통한 중국의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 그리고 아마도 절대적으로도 -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Regional or guerilla rebellion과 관계된 지표는 SA와 UD인데, UD의 경우는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SA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5.7점, 아시아 평균은 6.6점인데, 중국의 경우는 5.8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거의 근사하고 아시아 평균 보다는 낮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SA만을 본다면 중국의 경우 regional or guerilla rebellion을 통한 국가실패의 가능성은 국제적으로 비교해 별로 높지 않고, 아시아 평균에 비해서는 오히려 낮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국가실패가 발생한다면 그 유형은 regional or guerilla rebellion 이 아닐 소지가 크다.

Democratic collapse와 관련된 지표는 FE이다. FE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1 점, 아시아 평균은 7.3점인데, 중국은 7.2점으로서 전세계 평균보다는 높지만 아시아 평균보다는 근소하게 낮다. 이는 일반적인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중국이 democratic collapse 방식을 통해서 국가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succession or reform crisis와 관련된 지표는 DS인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4점, 아시아 평균은 7.4점이다. 중국은 2010년 현재 DS의 값은 8.3점으로서 전세계 평균이나 아시아 평균보다 각기 1.9점, 0.9점 더 높다. 이는 권력승계나 개혁 중에 중국이 국가실패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종합하건대 중국의 경우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전세계 평균이나 아시아 지역 평균에 비해 대부분의 유형에 있어서 더 높다.<sup>16</sup> 하지만 regional or guerilla rebellion 방식을 통한 국가실패의 가능성은 더 높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경로별 국가실패 가능성(2010년 기준)

경로	지표	China	아시아평균	전세계평균
Group conflict	GG	8.8	7.0	6.0
	PS	7.0	6.4	5.8
State predation	HR	9.0	7.3	6.0
	UD	9.0	7.1	6.8
Rebellion	SA	5.8	6.6	5.7
	UD	9.0	7.1	6.8
Democratic collapse	FE	7.2	7.3	6.1
Succession or reform crisis	DS	8.3	7.4	6.4

Japan

Year	DP	RI	GG	HF	UD	ED	DS	PS	HR	SA	FE	EI	Total
2006	4	1	3.8	2	2.5	2.6	1.8	1	3	1	1.3	4	28
2007	4.1	1.1	3.8	2	2.5	2.6	1.8	1.2	3.5	1	1.3	3.6	28.5
2008	4.3	1.1	3.8	2	2.5	2.3	1.8	1.2	3.4	2	1.7	3.6	29.7
2009	4.2	1.1	3.8	2	2.5	3.1	2	1.2	3.4	2	2	3.9	31.2
2010	4	1.2	3.6	2.1	2.6	3.5	1.8	1.3	3.2	2.1	2.2	3.7	31.3

\* 이 표에서 Total은 12개 지표의 합계.

<sup>16</sup> 이러한 사실과 G2국가로 국제적 위상이 증가한 중국의 현실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는지는 흥미로운 주제이다.

Escalation of communal group conflicts과 관련된 지표는 GG와 PS이다. GG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0점, 아시아 평균은 7.0점인데, 일본의 경우는 3.6점으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다. PS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5.8점, 아시아 평균은 6.4점인데, 일본의 경우는 1.3점으로서 이 역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다. State predation과 관계된 지표는 HR과 UD이다. HR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0점, 아시아 평균은 7.3점인데, 일본의 경우는 3.2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또한 낮은 수치이다. UD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8점, 아시아 평균은 7.1점인데, 일본의 경우는 2.6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Regional or guerilla rebellion과 관계된 지표는 SA와 UD인데, UD의 경우는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SA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5.7점, 아시아 평균은 6.6점인데 일본의 경우는 2.1점으로서 이 역시 아주 낮다. Democratic collapse와 관련된 지표는 FE이다. FE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1점, 아시아 평균은 7.3점인데, 일본은 2.2점으로서 낮다. 마지막으로 succession or reform crisis와 관련된 지표는 DS인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4점, 아시아 평균은 7.4점이다. 일본의 경우 2010년 현재 DS의 값은 1.8점으로 전세계 평균이나 아시아 평균에 비교 대단히 낮다.

종합하건대 일본의 경우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전세계 평균이나 아시아 지역 평균에 비해 대단히 낮다. 따라서 2005년 조사에서 일본을 제외시킨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경로별 국가실패 가능성(2010년 기준)

경로	지표	Japan	아시아 평균	전세계 평균
Group conflict	GG	3.6	7.0	6.0
	PS	1.3	6.4	5.8
State predation	HR	3.2	7.3	6.0
	UD	2.6	7.1	6.8
Rebellion	SA	2.1	6.6	5.7
	UD	2.6	7.1	6.8
Democratic collapse	FE	2.2	7.3	6.1
Succession or reform crisis	DS	1.8	7.4	6.4

North Korea

Year	DP	RI	GG	HF	UD	ED	DS	PS	HR	SA	FE	EI	Total
2005	8	6	7.2	8.1	9	9.6	9.8	9.7	9	8.3	8	3	95.7
2006	8	6	7.2	5	9	9.5	9.8	9.5	9.5	8.3	8	7.5	97.3
2007	8	6	7.2	5	8.8	9.6	9.8	9.5	9.7	8.3	7.9	7.9	97.7
2008	8.2	6	7.2	5	8.8	9.6	9.8	9.6	9.7	8.3	7.6	7.9	97.7
2009	8.5	6	7.2	5	8.8	9.6	9.8	9.6	9.5	8.3	7.8	8.2	98.3
2010	8.5	5.6	7.2	5	8.8	9.6	9.9	9.6	9.5	8.1	7.8	8.2	97.8

\* 이 표에서 Total은 12개 지표의 합계.

Escalation of communal group conflicts과 관련된 지표는 GG와 PS이다. GG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0점, 아시아 평균은 7.0점인데, 북한의 경우는 7.2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각기 1.2점, 0.2점이 높다. 이는 중국의 8.8점보다 낮은 수치이다. 한편 PS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5.8점, 아시아 평균은 6.4점인데, 북한의 경우는 9.6점으로서 절대적으로나 비교적으로나 대단히 높은 수치이다. 중국의 경우 동일한 지표의 값은 7.0점이다. 따라서 group conflict를 통한 북한의 국가실패의 가능성은, GG를 기준으로 보면 전세계와 아시아 평균보다 높지만 중국보다는 낮은 데에 비해 PS를 기준으로 보면 절대적으로나 비교적으로 대단히 높다. 둘 중 어느 지표가 더 중요한지 선형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group conflict를 통한 북한의 국가실패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결론지어도 무방할 것이다.

State predation과 관계된 지표는 HR과 UD이다. HR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0점, 아시아 평균은 7.3점인데, 북한의 경우는 9.5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각기 3.5점, 2.2점이 높다. (참고로 중국의 경우는 9.0점이다.) UD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8점, 아시아 평균은 7.1점인데, 북한의 경우는 8.8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각기 2점과 1.7점이 더 높다. 이는 앞에서 본 중국의 9.0점보다는 근소하게 낮은 수치이다. 두 지표를 종합해 보면 state predation 방식을 통한 북한의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상당히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Regional or guerilla rebellion과 관계된 지표는 SA와 UD인데, UD의 경우는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SA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5.7점, 아시아 평균은 6.6점인데, 북한의 경우는 8.1점으로서 전세계 평균이나 아시아 평균을 웃돈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regional or guerilla rebellion을 통한 북한의 국가실패의 가능성 또한 높다는 것이다.

Democratic collapse와 관련된 지표는 FE이다. FE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1점, 아시아 평균은 7.3점인데, 북한은 7.8점으로서 전세계 및 아시아 평균보다 높다. 마지막으로 succession or reform crisis와 관련된 지표는 DS인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4점, 아시아 평균은 7.4점이다. 북한의 경우 2010년 현재 DS의 값은 9.9점으로서 대단히 높다. 이는 권력승계나 개혁 중에 북한이 국가실패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북한의 경우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전세계 평균이나 아시아 지역 평균에 비해 모두 높은데, 특히 권력승계나 개혁 과정에서 국가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10점 만점 대비 9.9점으로서 대단히 높다.

경로별 국가실패 가능성(2010년 기준)

경로	지표	North Korea	아시아 평균	전세계 평균
Group conflict	GG	7.2	7.0	6.0
	PS	9.6	6.4	5.8
State predation	HR	9.5	7.3	6.0
	UD	8.8	7.1	6.8
Rebellion	SA	8.1	6.6	5.7
	UD	8.8	7.1	6.8
Democratic collapse	FE	7.8	7.3	6.1
Succession or reform crisis	DS	9.9	7.4	6.4

South Korea

Year	DP	RI	GG	HF	UD	ED	DS	PS	HR	SA	FE	EI	Total
2006	4	4.2	3.5	5.5	2.5	1	3.9	1.5	2.8	1	3	7	39.9
2007	4	3.9	3.5	5.5	2.4	1.4	3.9	2	2.7	1	2.9	6.5	39.7
2008	4	3.9	4	5.3	2.4	1.6	3.9	2	2.7	1	3.3	6.5	40.6
2009	4	3.5	4.1	5	2.4	2.1	4.1	2.2	2.7	1.4	3.6	6.5	41.6
2010	3.6	3.3	3.9	4.8	2.5	2.8	3.9	2.3	2.8	1.5	3.6	6.3	41.3

\* 이 표에서 Total은 12개 지표의 합계.

Escalation of communal group conflicts과 관련된 지표는 GG와 PS이다. GG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0점, 아시아 평균은 7.0점인데, 한국의 경우는 3.9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많이 낮다. PS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5.8점, 아시아 평균은 6.4점인데, 한국의 경우는 2.3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다. State predation과 관계된 지표는 HR과 UD이다. HR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0점, 아시아 평균은 7.3점인데, 한국의 경우는 2.8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낮다. UD의 경우도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8점, 아시아 평균은 7.1점인데, 한국의 경우는 2.5점으로서 낮아서 state predation 방식을 통한 한국의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Regional or guerilla rebellion과 관계된 지표는 SA와 UD인데, UD의 경우는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SA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5.7점, 아시아 평균은 6.6점인데, 한국의 경우는 1.5점으로서 극히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한국의 경우 regional or guerilla rebellion을 통한 국가실패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Democratic collapse와 관련된 지표는 FE이다. FE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1점, 아시아 평균은 7.3점인데, 한국은 3.6점으로서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낮다. 마지막으로 succession or reform crisis와 관련된 지표는 DS인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4점, 아시아 평균은 7.4점이다. 한국의 경우 2010년 현재 DS의 값은 3.9점으로 낮아서 권력승계나 개혁 중에 한국이 국가실패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

요약하면 한국의 경우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전세계 평균이나 아시아 지역 평균에 비해 훨씬 낮다.

경로별 국가실패 가능성(2010년 기준)

경로	지표	South Korea	아시아 평균	전세계 평균
Group conflict	GG	3.9	7.0	6.0
	PS	2.3	6.4	5.8
State predation	HR	2.8	7.3	6.0
	UD	2.5	7.1	6.8
Rebellion	SA	1.5	6.6	5.7
	UD	2.5	7.1	6.8
Democratic collapse	FE	3.6	7.3	6.1
Succession or reform crisis	DS	3.9	7.4	6.4

## 〈동남 아시아〉

## Brunei Darussalam

Year	DP	RI	GG	HF	UD	ED	DS	PS	HR	SA	FE	EI	Total
2007	6.3	5.6	7.4	4.2	7.9	3.2	7.7	3.3	6.6	6.9	7.4	4.7	71.2
2008	5.9	4.9	6.7	4.2	7.4	3.2	7.7	3.3	6.8	6.3	7.4	4.7	68.5
2009	5.4	4.4	6.6	4	7.8	3.4	7.9	3.6	6.8	6.1	7.4	4.7	68.1
2010	5.4	4.2	6.6	3.8	7.8	3.7	7.7	3.5	6.9	5.9	7.4	4.7	67.6

\* 이 표에서 Total은 12개 지표의 합계.

Escalation of communal group conflicts과 관련된 지표는 GG와 PS이다. GG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0점, 아시아 평균은 7.0점인데, 브루나이의 경우는 6.6점으로서 전세계 평균보다는 높지만 아시아 평균에 비해서는 낮다. PS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5.8점, 아시아 평균은 6.4점인데, 브루나이의 경우는 3.5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낮다. 이러한 수치들은 브루나이의 경우 집단간의 갈등을 통해서 국가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의미한다.

State predation과 관계된 지표는 HR과 UD이다. HR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0점, 아시아 평균은 7.3점인데, 브루나이의 경우는 6.9점으로서 전세계 평균보다는 높고, 아시아 평균에 비해서는 낮다. UD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8점, 아시아 평균은 7.1점인데, 브루나이의 경우는 7.8점으로서 전세계 평균 및 아시아 평균보다 높다. 이는 state predation 방식을 통한 브루나

이의 국가실패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Regional or guerilla rebellion과 관계된 지표는 SA와 UD인데, UD의 경우는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SA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5.7점, 아시아 평균은 6.6점인데, 브루나이의 경우는 5.9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거의 근사하고 아시아 평균 보다는 낮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브루나이의 경우 regional or guerilla rebellion을 통한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아시아 평균에 비해서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 Democratic collapse와 관련된 지표는 FE이다. FE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1점, 아시아 평균은 7.3점인데, 브루나이는 7.4점으로서 전세계 평균보다는 높고 아시아 평균보다도 근소하게 높다. 마지막으로 succession or reform crisis와 관련된 지표는 DS인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4점, 아시아 평균은 7.4점이다. 브루나이의 경우 2010년 현재 DS의 값은 7.7점으로서 전세계 평균이나 아시아 평균보다 더 높다. 이는 권력승계나 개혁 중에 브루나이가 국가실패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종합하건대 브루나이의 경우 국가실패의 가능성은 대부분의 유형에 있어서 전세계 평균보다 높다. 하지만 집단갈등을 통한 국가실패의 가능성은 아시아 지역 평균에 비하여 높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경로별 국가실패 가능성(2010년 기준)

경로	지표	Brunei	아시아 평균	전세계 평균
Group conflict	GG	6.6	7.0	6.0
	PS	3.5	6.4	5.8
State predation	HR	6.9	7.3	6.0
	UD	7.8	7.1	6.8
Rebellion	SA	5.9	6.6	5.7
	UD	7.8	7.1	6.8
Democratic collapse	FE	7.4	7.3	6.1
Succession or reform crisis	DS	7.7	7.4	6.4

## Cambodia

Year	DP	RI	GG	HF	UD	ED	DS	PS	HR	SA	FE	EI	Total
2006	7.5	6.5	7	8	7.2	6	7.8	7.5	6.9	6.7	7.5	6.4	85
2007	7.6	5.9	7.3	8	7.2	6.4	8.5	7.6	7.1	6.2	7.5	6.4	85.7
2008	7.8	5.7	7.5	8	7.2	6.6	8.3	7.6	7.1	6.2	7.2	6.6	85.8
2009	7.9	5.2	7	8	7.2	7.5	8.5	7.9	7.4	6.5	7.5	6.7	87.3
2010	8	5.3	6.9	7.9	7.1	7.7	8.7	8.3	7.7	6.4	7.7	7	88.7

\* 이 표에서 Total은 12개 지표의 합계.

Escalation of communal group conflicts과 관련된 지표는 GG와 PS이다. GG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0점, 아시아 평균은 7.0점인데, 캄보디아의 경우는 6.9점으로서 전세계 평균보다는 높지만 아시아 평균에 비해서는 근소하게 낮다. PS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5.8점, 아시아 평균은 6.4점인데, 캄보디아의 경우는 8.3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높다. 캄보디아의 경우 집단갈등을 통한 국가실패와 관련된 한 지표는 아시아 평균보다 근소하게 낮고, 다른 지표는 아시아 평균에 비해 확실하게 높기 때문에 집단갈등을 통한 국가실패에 가능성에 관하여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

State predation과 관계된 지표는 HR과 UD이다. HR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0점, 아시아 평균은 7.3점인데, 캄보디아의 경우는 7.7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높다. UD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8점, 아시아 평균은 7.1점인데, 캄보디아의 경우는 7.1점으로서 전세계 평균보다는 높고, 아시아 평균과는 같다. 이는 state predation 방식을 통한 캄보디아의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아시아 지역 평균보다는 근소하게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Regional or guerilla rebellion과 관계된 지표는 SA와 UD인데, UD의 경우는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SA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5.7점, 아시아 평균은 6.6점인데, 캄보디아의 경우는 6.4점으로서 전세계 평균보다는 높지만 아시아 평균보다는 근소하게 낮다. Democratic collapse와 관련된 지표는 FE이다. FE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1점, 아시아 평균은 7.3점인데, 캄보디아는 7.7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보다 높다. 이는 일반적인 아시아 국가

에 비해서 캄보디아가 democratic collapse 방식을 통해서 국가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succession or reform crisis와 관련된 지표는 DS인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4점, 아시아 평균은 7.4점이다. 캄보디아의 경우 2010년 현재 DS의 값은 8.7점으로서 전세계 평균이나 아시아 평균보다 더 높다. 이는 권력승계나 개혁 중에 캄보디아가 국가실패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종합하건대 캄보디아의 경우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아시아 지역 평균과 비슷하거나 높고, 특히 권력승계나 개혁 와중에 국가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경로별 국가실패 가능성(2010년 기준)

경로	지표	Cambodia	아시아 평균	전세계 평균
Group conflict	GG	6.9	7.0	6.0
	PS	8.3	6.4	5.8
State predation	HR	7.7	7.3	6.0
	UD	7.1	7.1	6.8
Rebellion	SA	6.4	6.6	5.7
	UD	7.1	7.1	6.8
Democratic collapse	FE	7.7	7.3	6.1
Succession or reform crisis	DS	8.7	7.4	6.4

East Timor

Year	DP	RI	GG	HF	UD	ED	DS	PS	HR	SA	FE	EI	Total
2007	8.1	8.5	7.1	5.3	6.5	8.5	9.5	7.9	6.9	9	8.8	8.8	94.9
2008	8.1	8.6	7.1	5.3	6.5	8.2	9	8	6.9	8.8	8.5	8.8	93.8
2009	8.4	9	7.3	5.7	6.8	8.4	9.4	8.4	7	9	8.8	9	97.2
2010	8.6	9.1	7.5	6.1	7	8.4	9.1	8.7	7	8.8	8.7	9.2	98.2

\* 이 표에서 Total은 12개 지표의 합계.

Escalation of communal group conflicts과 관련된 지표는 GG와 PS이다. GG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0점, 아시아 평균은 7.0점인데, 동티모르의 경우는 7.5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높다. PS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5.8점, 아시아 평균은 6.4점인데, 동티모르의 경우는 8.7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각기 상당히 높다. 이들 수치는 동티모

르가 집단갈등을 통해서 국가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전세계평균은 물론 아시아 평균에 비하여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State predation과 관계된 지표는 HR과 UD이다. HR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0점, 아시아 평균은 7.3점인데, 동티모르의 경우는 7점으로서 전세계 평균보다는 높지만 아시아 평균에 비해서는 근소하게 낮다. UD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8점, 아시아 평균은 7.1점인데, 동티모르의 경우는 7.0점으로서 전세계 평균보다는 높지만 아시아 평균에 비해서는 근소하게 낮다. 이는 state predation 방식을 통한 동티모르의 국가실패 가능성이 아시아 평균과 비슷하거나 근소하게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

Regional or guerilla rebellion과 관계된 지표는 SA와 UD인데, UD의 경우는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SA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5.7점, 아시아 평균은 6.6점 인데, 동티모르의 경우는 8.8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보다 상당히 높다. 이러한 결과는 동티모르의 경우 regional or guerilla rebellion을 통한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Democratic collapse와 관련된 지표는 FE이다. FE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1점, 아시아 평균은 7.3점인데, 동티모르는 8.7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보다 상당히 높다. 이는 일반적인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동티모르가 democratic collapse 방식을 통해서 국가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succession or reform crisis와 관련된 지표는 DS인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4점, 아시아 평균은 7.4점이다. 동티모르의 경우 2010년 현재 DS의 값은 9.1점으로서 대단히 높다. 이는 권력승계나 개혁 중에 동티모르가 국가실패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종합하건대 동티모르의 경우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전세계 평균이나 아시아 지역 평균에 비해 대부분의 유형에 있어서 높다. 특히 권력승계 또는 개혁 중 국가 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경로별 국가실패 가능성(2010년 기준)

경로	지표	E. Timor	아시아 평균	전세계 평균
Group conflict	GG	7.5	7.0	6.0
	PS	8.7	6.4	5.8
State predation	HR	7	7.3	6.0
	UD	7	7.1	6.8
Rebellion	SA	8.8	6.6	5.7
	UD	7	7.1	6.8
Democratic collapse	FE	8.7	7.3	6.1
Succession or reform crisis	DS	9.1	7.4	6.4

Indonesia

Year	DP	RI	GG	HF	UD	ED	DS	PS	HR	SA	FE	EI	Total
2005	8.6	7	6.3	8.9	9	4	9.2	4	8.6	7.6	8.8	5	87
2006	7.5	8.2	6.3	8.3	8	6.8	6.7	7.2	7.5	7.5	7.9	7.3	89.2
2007	7	7.5	6	7.5	8	6.5	6.5	7	7	7.3	7.2	6.9	84.4
2008	7	7.3	5.9	7.5	8	6.3	6.8	6.7	6.8	7.1	7	6.9	83.3
2009	7.3	6.7	6.3	7.2	8.1	6.9	6.7	6.7	6.7	7.3	7.3	6.9	84.1
2010	7.2	6.5	6.3	7.3	7.9	6.7	6.9	6.7	6.5	7.3	7.1	6.7	83.1

\* 이 표에서 Total은 12개 지표의 합계.

Escalation of communal group conflicts과 관련된 지표는 GG와 PS이다. GG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0점, 아시아 평균은 7.0점인데,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6.3점으로서 전세계 평균보다는 높지만 아시아 평균에 비해서는 낮다. PS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5.8점, 아시아 평균은 6.4점인데,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6.7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다소 높다. 아시아 평균에 비해서 인도네시아가 집단갈등을 통해서 국가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State predation과 관계된 지표는 HR과 UD이다. HR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0점, 아시아 평균은 7.3점인데,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6.5점으로서 전세계 평균보다는 높지만 아시아 평균에 비해서는 낮다. UD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8점, 아시아 평균은 7.1점인데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7.9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높다. 이러한 지표 값들로 인해서 인도네

시아가 state predation 방식을 통해서 국가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에 대하여 딱 잘라 말하기는 힘들다.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

Regional or guerilla rebellion과 관계된 지표는 SA와 UD인데, UD의 경우는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SA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5.7점, 아시아 평균은 6.6점인데,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7.3점으로서 전세계 평균이나 아시아 평균 보다 높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regional or guerilla rebellion을 통한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국제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비교해서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표 값이 8점대나 9점대는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아주 높다고 하기까지는 어렵다. Democratic collapse 와 관련된 지표는 FE이다. FE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1점, 아시아 평균은 7.3점인데, 인도네시아는 7.1점으로서 전세계 평균보다는 높지만 아시아 평균보다는 근소하게 낮다. 이는 일반적인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인도네시아가 democratic collapse 방식을 통해서 국가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크지는 않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succession or reform crisis와 관련된 지표는 DS인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4점, 아시아 평균은 7.4점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0년 현재 DS의 값은 6.9점으로서 전세계 평균보다는 높지만 아시아 평균보다는 낮다.

요약하자면 인도네시아의 국가실패 가능성은 아시아 평균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아시아 평균보다 다소 높거나 낮지만 절대적인 수준에서 낮거나 높은 것이 아니다.

경로별 국가실패 가능성(2010년 기준)

경로	지표	Indonesia	아시아 평균	전세계 평균
Group conflict	GG	6.3	7.0	6.0
	PS	6.7	6.4	5.8
State predation	HR	6.5	7.3	6.0
	UD	7.9	7.1	6.8
Rebellion	SA	7.3	6.6	5.7
	UD	7.9	7.1	6.8
Democratic collapse	FE	7.1	7.3	6.1
Succession or reform crisis	DS	6.9	7.4	6.4

Laos

Year	DP	RI	GG	HF	UD	ED	DS	PS	HR	SA	FE	EI	Total
2005	9	6.7	6.3	8.8	9	6.5	7.9	2.5	9.4	9	9.7	6.7	91.5
2006	8	5.9	6.3	6.6	5.9	6.5	7.9	8	8.2	9	8.9	6.7	87.9
2007	8	5.5	6.5	6.6	5.7	7.1	7.9	8	8.5	8.2	8.6	6.6	87.2
2008	8	5.7	6.8	6.6	5.7	7.1	8.2	8	8.9	8.2	8.6	6.9	88.7
2009	8.2	5.9	7	6.6	6	7.5	8.2	8	8.5	7.6	8.3	7.2	89
2010	7.9	5.9	6.8	6.7	5.8	7.3	8.3	8.1	8.7	7.4	8.5	7.3	88.7

\* 이 표에서 Total은 12개 지표의 합계.

Escalation of communal group conflicts과 관련된 지표는 GG와 PS이다. GG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0점, 아시아 평균은 7.0점인데, 라오스의 경우는 6.8점으로서 전세계 평균보다는 높지만 아시아 평균에 비해서는 근소하게 낮다. PS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5.8점, 아시아 평균은 6.4점인데, 라오스의 경우는 8.1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높은 수치라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State predation과 관계된 지표는 HR과 UD이다. HR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0점, 아시아 평균은 7.3점인데, 라오스의 경우는 8.7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높다. UD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8점, 아시아 평균은 7.1점인데 라오스의 경우는 5.8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오히려 낮다. 집단간의 갈등을 통한 국가실패 그리고 state predation을 통한 국가실패와 관련된 지표들이 하나는 아시아 평균보다 낮고 다른 하나는 더 높기 때문에 이들 유형의 국가실패 가능성에 대하여 한마디로 높다 낮다고 결론 내리기 쉽다.

Regional or guerilla rebellion과 관계된 지표는 SA와 UD인데, UD의 경우는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SA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5.7점, 아시아 평균은 6.6점인데 라오스의 경우는 7.4점으로서 전세계 평균이나 아시아 평균보다 높다. 이 경우 역시 두 지표 중 하나는 아시아 평균보다 높고 다른 하나는 낮기 때문에 반란이나 봉기를 통한 국가실패 가능성에 관하여 딱 잘라서 말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Democratic collapse 와 관련된 지표는 FE이다. FE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1점, 아시아 평균은 7.3점인데, 라오스는 8.5점으로 높은 수치이다. 이는 일반적인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라오스가 democratic collapse 방식을 통해서 국가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succession or reform crisis와 관련된 지표는 DS인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4점, 아시아 평균은 7.4점이다. 라오스의 경우 2010년 현재 DS의 값은 8.3점으로 전세계 평균이나 아시아 평균보다 각기 1.9점, 0.9점 더 높다. 이는 권력승계나 개혁 중에 라오스가 국가실패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라오스의 경우 democratic collapse 나 succession or reform crisis를 통한 국가실패의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그 외 유형을 통한 국가실패의 가능성은 관련된 지표의 값들이 일률적으로 높거나 낮지 않기 때문에 국가실패의 가능성을 판단하기에 어렵다.

경로별 국가실패 가능성(2010년 기준)

경로	지표	Laos	아시아 평균	전세계 평균
Group conflict	GG	6.8	7.0	6.0
	PS	8.1	6.4	5.8
State predation	HR	8.7	7.3	6.0
	UD	5.8	7.1	6.8
Rebellion	SA	7.4	6.6	5.7
	UD	5.8	7.1	6.8
Democratic collapse	FE	8.5	7.3	6.1
Succession or reform crisis	DS	8.3	7.4	6.4

Malaysia

Year	DP	RI	GG	HF	UD	ED	DS	PS	HR	SA	FE	EI	Total
2005	7	5	5.9	5	9	1.3	8	7.7	8.6	6	8.3	1.8	73.6
2006	6.5	4.1	5.5	3.5	6.6	4.3	5.9	5.8	6.5	6.2	5.5	5.7	66.1
2007	6.3	4.1	5.5	3.6	6.6	4.6	5.9	5.4	6.5	6.3	5.3	5.8	65.9
2008	6.3	5	5.9	3.6	6.9	4.2	5.9	5.1	6.5	6.3	5.7	5.8	67.2
2009	6.5	5.2	6.2	3.8	6.9	4.7	6.1	5.2	6.5	6.1	6.1	5.6	68.9
2010	6.3	5	6.6	3.9	7	5.1	5.9	5	6.8	5.9	6.3	5.4	69.2

\* 이 표에서 Total은 12개 지표의 합계.

Escalation of communal group conflicts과 관련된 지표는 GG와 PS이다. GG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0점, 아시아 평균은 7.0점인데,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6.6점으로서 전세계 평균보다는 높지만 아시아 평균에 비해서는 낮다. PS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5.8점, 아시아 평균은 6.4점인데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5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낮다. 이러한 결과는 말레이시아는 적어도 아시아 평균에 비해서는 집단갈등을 통한 국가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State predation과 관계된 지표는 HR과 UD이다. HR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0점, 아시아 평균은 7.3점인데,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6.8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 사이에 있다. UD의 경우도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8점, 아시아 평균은 7.1점인데, 말레이시아는 7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 사이에 있다. 이는 state predation 방식을 통한 말레이시아의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아시아 평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시사한다.

Regional or guerilla rebellion과 관계된 지표는 SA와 UD인데, UD의 경우는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SA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5.7점, 아시아 평균은 6.6점인데,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5.9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거의 근사하고 아시아 평균 보다는 낮다.

Democratic collapse와 관련된 지표는 FE이다. FE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1점, 아시아 평균은 7.3점인데, 말레이시아는 6.3점으로서 전세계 평균보다는 근소하게 높지만 아시아 평균보다는 낮다. 이는 일반적인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말레이시아가 democratic collapse 방식을 통해서 국가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succession or reform crisis와 관련된 지표는 DS인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4점, 아시아 평균은 7.4점이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2010년 현재 DS의 값은 5.9점으로서 전세계 평균이나 아시아 평균보다 낮다.

종합하건대 말레이시아의 경우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전세계 평균에 비해서는 몰라도 아시아 지역 평균에 비해서는 더 낮다. 특히 권력승계나 개혁 외중에 국가 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은 전세계 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다.

경로별 국가실패 가능성(2010년 기준)

경로	지표	Malaysia	아시아 평균	전세계 평균
Group conflict	GG	6.6	7.0	6.0
	PS	5	6.4	5.8
State predation	HR	6.8	7.3	6.0
	UD	7	7.1	6.8
Rebellion	SA	5.9	6.6	5.7
	UD	7	7.1	6.8
Democratic collapse	FE	6.3	7.3	6.1
Succession or reform crisis	DS	5.9	7.4	6.4

## Myanmar

Year	DP	RI	GG	HF	UD	ED	DS	PS	HR	SA	FE	EI	Total
2005	8.9	8	6.3	8	9	6.9	9.2	8	9.6	9	7.5	3	93.4
2006	8.9	8.8	9	6	9	7.1	9.2	8.2	9.8	9	8	3.5	96.5
2007	8.5	8.5	9.1	6	8.9	7.6	9.1	8.3	9.8	9	8.2	4	97
2008	8.5	8.5	9.5	6	9	7.6	9.5	8.3	9.9	9.3	8.7	5.5	100.3
2009	9	8.8	8.9	6	9.5	8.2	9.5	9	9	8.4	8.7	6.5	101.5
2010	8.5	8.3	8.7	6.3	9.3	8.2	9.6	8.5	9.1	8.2	8.2	6.5	99.4

\* 이 표에서 Total은 12개 지표의 합계.

Escalation of communal group conflicts과 관련된 지표는 GG와 PS이다. GG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0점, 아시아 평균은 7.0점인데, 미얀마의 경우는 8.7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각기 2.7점, 1.7점이 높다. PS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5.8점, 아시아 평균은 6.4점인데 미얀마의 경우는 8.5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상당히 더 높다. 이러한 수치들은 미얀마가 집단갈등을 통하여 국가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국제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비교해서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State predation과 관계된 지표는 HR과 UD이다. HR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0점, 아시아 평균은 7.3점인데 미얀마의 경우는 9.1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각기 3.1점, 1.8점이 높다. UD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8점, 아시아 평균은 7.1점인데, 미얀마의 경우는 9.3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는 state predation 방식을 통한 미얀마의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나 상당히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Regional or guerilla rebellion과 관련된 지표는 SA와 UD인데, UD의 경우는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SA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5.7점, 아시아 평균은 6.6점인데 미얀마의 경우는 8.2점으로써 전세계 평균, 아시아 평균보다는 모두 높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미얀마의 경우 regional or guerilla rebellion을 통한 국가실패의 가능성도 또한 높다는 것이다.

Democratic collapse와 관련된 지표는 FE이다. FE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1점, 아시아 평균은 7.3점인데, 미얀마는 8.2점으로 9점대에 이르지 않는지만 전세계나 아시아 평균보다는 높다. 마지막으로 succession or reform crisis와 관련된 지표는 DS인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4점, 아시아 평균은 7.4점이다. 미얀마의 경우 2010년 현재 DS의 값은 9.6점으로써 전세계 평균이나 아시아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

종합하건대 미얀마의 경우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전세계 평균이나 아시아 지역 평균에 비해 대부분의 유형에 있어서 월등히 높다.

경로별 국가실패 가능성(2010년 기준)

경로	지표	Myanmar	아시아 평균	전세계 평균
Group conflict	GG	8.7	7.0	6.0
	PS	8.5	6.4	5.8
State predation	HR	9.1	7.3	6.0
	UD	9.3	7.1	6.8
Rebellion	SA	8.2	6.6	5.7
	UD	9.3	7.1	6.8
Democratic collapse	FE	8.2	7.3	6.1
Succession or reform crisis	DS	9.6	7.4	6.4

Philippines

Year	DP	RI	GG	HF	UD	ED	DS	PS	HR	SA	FE	EI	Total
2005	7	7	6.5	8.2	9	4.7	9.3	3.8	8.2	7	9.2	4	83.9
2006	7	5.5	7.2	5.7	7.5	5.3	7.8	6	6.1	7	7.2	6.9	79.2
2007	7	5.7	7.2	6.7	7.6	5.8	8.2	5.9	6.8	7.6	7.8	6.9	83.2
2008	6.9	5.7	7	7.2	7.6	5.9	8.3	5.9	6.8	7.4	7.8	6.9	83.4
2009	7.2	6.3	7.5	7.2	7.6	6	8.5	6.1	7	7.7	7.9	6.8	85.8
2010	7.7	6.7	7.6	7	7.4	5.8	8.6	6.3	7.5	7.9	8	6.6	87.1

\* 이 표에서 Total은 12개 지표의 합계.

Escalation of communal group conflicts과 관련된 지표는 GG와 PS이다. GG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0점, 아시아 평균은 7.0점인데, 필리핀의 경우는 7.6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높다. PS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5.8점, 아시아 평균은 6.4점인데, 필리핀의 경우는 6.3점으로서 전세계 평균보다는 높지만 아시아 평균보다는 근소하게 낮다. 따라서 집단갈등을 통한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일반적인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더 높거나 낮은지 단언하기 힘들다.

State predation과 관계된 지표는 HR과 UD이다. HR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0점, 아시아 평균은 7.3점인데, 필리핀의 경우는 7.5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높다. UD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8점, 아시아 평균은 7.1점인데 필리핀의 경우는 7.4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높다. 두 지표가 모두 아시아 평균에 비해 높기 때문에 비교적 state predation을 통한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각 지표의 값이 모두 7점대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높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

Regional or guerilla rebellion과 관계된 지표는 SA와 UD인데, UD의 경우는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SA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5.7점, 아시아 평균은 6.6점 인데 필리핀의 경우는 7.9점으로서 전세계 평균이나 아시아 평균보다 높다. 이 유형 역시 아시아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국가실패의 가능성은 높으나 절대적으로 높다고까지 하기는 힘들다.

Democratic collapse와 관련된 지표는 FE이다. FE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1점, 아시아 평균은 7.3점인데, 필리핀은 8점으로서 전세계 평균 및 아시아 평균보다 높다. 마지막으로 succession or reform crisis와 관련된 지표는 DS인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4점, 아시아 평균은 7.4점이다. 필리핀의 경우 2010년 현재 DS의 값은 8.6점으로서 전세계 평균이나 아시아 평균보다 상당히 높다. 이는 다른 경로보다도 권력승계나 개혁 중에 필리핀이 국가실패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필리핀의 경우 국가실패의 가능성은 아시아 지역 평균과 비슷하게

나 근소하게 높다. 예외는 권력승계나 개혁 중에 국가실패를 맞이할 가능성이인데 필리핀은 아시아 지역 평균보다 더 높은 국가실패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경로별 국가실패 가능성(2010년 기준)

경로	지표	Philippines	아시아 평균	전세계 평균
Group conflict	GG	7.6	7.0	6.0
	PS	6.3	6.4	5.8
State predation	HR	7.5	7.3	6.0
	UD	7.4	7.1	6.8
Rebellion	SA	7.9	6.6	5.7
	UD	7.4	7.1	6.8
Democratic collapse	FE	8	7.3	6.1
Succession or reform crisis	DS	8.6	7.4	6.4

Singapore

Year	DP	RI	GG	HF	UD	ED	DS	PS	HR	SA	FE	EI	Total
2006	2	1	3	3	2.5	3.3	3.5	1	3.5	1	4	3	30.8
2007	2.9	1.1	3	3	2.5	3.4	3.6	1.5	4	1	4	3	33
2008	2.9	1.1	3	2.7	2.9	3.1	4	1.5	4.3	1	4	2.8	33.3
2009	3	1.1	3.1	2.7	3	3.2	4	1.5	4.3	1	4.1	2.8	33.8
2010	2.8	0.9	2.9	2.5	3.1	3.7	4.2	1.7	4.4	1.5	4.1	3	34.8

\* 이 표에서 Total은 12개 지표의 합계.

Escalation of communal group conflicts과 관련된 지표는 GG와 PS이다. GG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0점, 아시아 평균은 7.0점인데, 싱가포르의 경우는 2.9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대단히 낮다. PS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5.8점, 아시아 평균은 6.4점인데, 싱가포르의 경우는 1.7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역시 많이 낮다.

State predation과 관계된 지표는 HR과 UD이다. HR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0점, 아시아 평균은 7.3점인데, 싱가포르의 경우 4.4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낮다. UD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8점, 아시아 평균은 7.1점인데, 싱가포르의 경우는 3.1점으로서 이 역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낮다. Regional or guerilla rebellion과 관계된 지표는 SA와 UD인데, UD의 경우는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SA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5.7점, 아시아 평균은 6.6점 인데, 싱가포르의 경우는 1.5점으로서 극히 낮다.

Democratic collapse와 관련된 지표는 FE이다. FE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1점, 아시아 평균은 7.3점인데, 싱가포르는 4.1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보다 낮다. 마지막으로 succession or reform crisis와 관련된 지표는 DS인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4점, 아시아 평균은 7.4점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2010년 현재 DS의 값은 4.2점으로서 전세계 평균이나 아시아 평균보다 낮다.

종합하건대 싱가포르의 경우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전세계 평균이나 아시아 지역 평균에 비해 모든 유형에 있어서 낮다.

경로별 국가실패 가능성(2010년 기준)

경로	지표	Singapore	아시아 평균	전세계 평균
Group conflict	GG	2.9	7.0	6.0
	PS	1.7	6.4	5.8
State predation	HR	4.4	7.3	6.0
	UD	3.1	7.1	6.8
Rebellion	SA	1.5	6.6	5.7
	UD	3.1	7.1	6.8
Democratic collapse	FE	4.1	7.3	6.1
Succession or reform crisis	DS	4.2	7.4	6.4

Thailand

Year	DP	RI	GG	HF	UD	ED	DS	PS	HR	SA	FE	EI	Total
2005	9	5	6.3	4	9	0.9	8.5	3.5	7	9	9.2	6	77.4
2006	7.5	5.7	8.1	4.3	7.5	2	6.8	6	6.5	6.8	7.2	6.5	74.9
2007	7	5.8	7.8	4.4	7.5	3	8	5.5	6.3	7.2	8	5.5	76
2008	6.8	6	7.7	4.4	7.5	3.6	7.7	5.5	6.2	7	7.7	5.5	75.6
2009	6.9	6.5	8	4.5	7.7	3.8	8.2	5.4	6.9	7.5	8	5.8	79.2
2010	6.7	6.7	7.8	4.7	7.5	4.3	8	5.4	7	7.4	8	5.3	78.8

\* 이 표에서 Total은 12개 지표의 합계.

Escalation of communal group conflicts과 관련된 지표는 GG와 PS이다. GG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0점, 아시아 평균은 7.0점인데, 태국의

경우는 7.8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각기 1.8점, 0.8점이 높다. PS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5.8점, 아시아 평균은 6.4점인데 태국의 경우는 5.4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낮다. 집단적 갈등과 관련된 두 지표가 일률적으로 높거나 낮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실패의 가능성을 한마디로 평가하기 힘들지만 만약 높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지 절대적으로 높은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State predation과 관계된 지표는 HR과 UD이다. HR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0점, 아시아 평균은 7.3점인데, 태국의 경우는 7.0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 사이에 있다. UD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8점, 아시아 평균은 7.1점인데, 태국의 경우는 7.5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State predation과 관련된 두 지표도 역시 일률적으로 높거나 낮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실패의 가능성을 한마디로 평가하기 힘들지만 만약 높다고 하더라도 아시아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지 절대적으로 높은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Regional or guerilla rebellion과 관계된 지표는 SA와 UD인데, UD의 경우는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SA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5.7점, 아시아 평균은 6.6점인데 태국의 경우는 7.4점으로서 전세계 평균이나 아시아 평균보다 높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태국의 경우 regional or guerilla rebellion을 통한 국가실패의 가능성은 아시아 평균에 비해서는 다소 높다는 것이다.

Democratic collapse와 관계된 지표는 FE이다. FE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1점, 아시아 평균은 7.3점인데, 태국은 8점으로서 전세계 평균이나 아시아 평균에 비하여 높다. 이는 일반적인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태국이 democratic collapse 방식을 통해서 국가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succession or reform crisis와 관련된 지표는 DS인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4점, 아시아 평균은 7.4점이다. 태국의 경우 2010년 현재 DS의 값은 8점으로서 전세계 평균이나 아시아 평균보다 높다. 이는 권력승계나 개혁 중에 태국이 국가실패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시

사한다.

종합하건대 중국의 경우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아시아 지역 평균에 비해 같거나 좀 높은 편으로 특히 rebellion, democratic collapse, succession or reform crisis 방식을 통한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경로별 국가실패 가능성(2010년 기준)

경로	지표	Thailand	아시아 평균	전세계 평균
Group conflict	GG	7.8	7.0	6.0
	PS	5.4	6.4	5.8
State predation	HR	7	7.3	6.0
	UD	7.5	7.1	6.8
Rebellion	SA	7.4	6.6	5.7
	UD	7.5	7.1	6.8
Democratic collapse	FE	8	7.3	6.1
Succession or reform crisis	DS	8	7.4	6.4

Vietnam

Year	DP	RI	GG	HF	UD	ED	DS	PS	HR	SA	FE	EI	Total
2005	8.6	8	5.6	8.5	8.9	3.4	7.6	4.3	8.4	8	6.4	7.2	84.9
2006	7	6.5	5.3	7	6.2	5.6	7	6.6	7	7.5	7	5.9	78.6
2007	6.5	5.9	5.3	7	6.2	6.2	7	6.5	6.9	7.4	7	5.9	77.8
2008	6.6	5	5.3	6	6.2	6.1	7.2	6	7	6.4	6.9	5.9	74.6
2009	6.8	5.3	5.5	6	6.5	6.7	7.3	6.3	7.2	6.2	7.1	6	76.9
2010	6.9	5.2	5.3	5.9	6.5	6.6	7.3	6.4	7.3	6	7	6.2	76.6

\* 이 표에서 Total은 12개 지표의 합계.

Escalation of communal group conflicts과 관련된 지표는 GG와 PS이다. GG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0점, 아시아 평균은 7.0점인데, 베트남의 경우는 5.3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낮다. PS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5.8점, 아시아 평균은 6.4점인데, 베트남의 경우는 6.4점으로서 전세계 평균보다 높고 아시아 평균과 같다. 따라서 집단갈등을 통한 국가실패의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아시아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State predation과 관계된 지표는 HR과 UD이다. HR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0점, 아시아 평균은 7.3점인데, 베트남의 경우는 7.3점으로서 이

역시 전세계 평균보다 높고 아시아 평균과 같다. UD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8점, 아시아 평균은 7.1점인데 베트남의 경우는 6.5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낮다. 이는 state predation 방식을 통한 베트남의 국가 실패의 가능성이 아시아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

Regional or guerilla rebellion과 관계된 지표는 SA와 UD인데, UD의 경우는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SA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5.7점, 아시아 평균은 6.6점인데, 베트남의 경우는 6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거의 근사하고 아시아 평균 보다는 낮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베트남의 경우 regional or guerilla rebellion을 통한 국가실패의 가능성은 국제적으로 비교해 별로 높지 않고, 아시아 평균에 비해서는 오히려 낮다는 것이다. 베트남에서 국가실패가 발생한다면 그 유형은 regional or guerilla rebellion 경로가 아닐 소지가 크다.

Democratic collapse와 관련된 지표는 FE이다. FE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1점, 아시아 평균은 7.3점인데, 베트남은 7점으로서 전세계 평균보다는 높지만 아시아 평균보다는 근소하게 낮다. 이는 일반적인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베트남이 democratic collapse 방식을 통해서 국가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succession or reform crisis와 관련된 지표는 DS인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4점, 아시아 평균은 7.4점이다. 베트남의 경우 2010년 현재 DS의 값은 7.3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 사이에 있다.

종합하건대 베트남의 경우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대부분의 유형에 있어서 아시아 지역 평균과 같거나 아시아 지역 평균에 비해 낮다.

경로별 국가실패 가능성(2010년 기준)

경로	지표	Vietnam	아시아 평균	전세계 평균
Group conflict	GG	5.3	7.0	6.0
	PS	6.4	6.4	5.8
State predation	HR	7.3	7.3	6.0
	UD	6.5	7.1	6.8
Rebellion	SA	6	6.6	5.7
	UD	6.5	7.1	6.8
Democratic collapse	FE	7	7.3	6.1
Succession or reform crisis	DS	7.3	7.4	6.4

## 〈중앙 아시아〉

## Kazakhstan

Year	DP	RI	GG	HF	UD	ED	DS	PS	HR	SA	FE	EI	Total
2005	9	5	7.2	3.8	9	2.5	9.1	5	8.1	6	9.6	4	78.3
2006	5	2.9	5.1	4	6.2	6.5	7.5	6.7	7	6.7	7.7	6.6	71.9
2007	5.7	3	5.2	4	6.2	6.6	7.5	6.1	7	6.7	7.7	6.6	72.3
2008	6.2	3.6	5.2	4	6.5	6	7.7	5.5	6.8	6.5	7.8	6.6	72.4
2009	6	3.9	5.5	4	6.4	6.4	7.7	5.3	6.8	6.5	7.6	6.4	72.5
2010	5.8	4	5.7	4.1	6.2	6.7	7.5	5.5	7.1	6.3	7.6	6.2	72.7

\* 이 표에서 Total은 12개 지표의 합계.

Escalation of communal group conflicts과 관련된 지표는 GG와 PS이다. GG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0점, 아시아 평균은 7.0점인데,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5.7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PS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5.8점, 아시아 평균은 6.4점인데,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5.5점으로서 이 역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카자흐스탄이 집단갈등을 통해서 국가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State predation과 관계된 지표는 HR과 UD이다. HR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0점, 아시아 평균은 7.3점인데,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7.1점으로서 전세계 평균보다는 높지만 아시아 평균보다는 낮다. UD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8점, 아시아 평균은 7.1점인데,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6.2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보다 낮다. 이는 state predation 방식을 통한 카자흐스탄의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아시아 평균에 비해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

Regional or guerilla rebellion과 관계된 지표는 SA와 UD인데, UD의 경우는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SA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5.7점, 아시아 평균은 6.6점인데,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6.3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 사이에 있다 Democratic collapse와 관련된 지표는 FE이다. FE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1점, 아시아 평균은 7.3점인데, 카자흐스탄은 7.6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보다 높다. 이는 일반적인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카자흐스탄이 democratic collapse 방식을 통해서 국가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다소 높은 편임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succession or reform crisis와 관련된 지표는 DS인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4점, 아시아 평균은 7.4점이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2010년 현재 DS의 값은 7.5점으로서 전세계 평균이나 아시아 평균보다 더 높다. 이는 권력승계나 개혁 중에 카자흐스탄이 국가실패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아시아 평균보다 다소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종합하건대 카자흐스탄의 경우 집단갈등을 통해서 국가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democratic collapse 나 succession or reform crisis를 통해서 국가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은 전세계 평균이나 아시아 지역 평균에 비해 근소하게 높다.

경로별 국가실패 가능성(2010년 기준)

경로	지표	Kazakhstan	아시아 평균	전세계 평균
Group conflict	GG	5.7	7.0	6.0
	PS	5.5	6.4	5.8
State predation	HR	7.1	7.3	6.0
	UD	6.2	7.1	6.8
Rebellion	SA	6.3	6.6	5.7
	UD	6.2	7.1	6.8
Democratic collapse	FE	7.6	7.3	6.1
Succession or reform crisis	DS	7.5	7.4	6.4

Kyrgyzstan

Year	DP	RI	GG	HF	UD	ED	DS	PS	HR	SA	FE	EI	Total
2005	8	5	5.4	4.3	9	5.8	8.9	5.7	7.9	5	9.7	5.7	80.4
2006	8	6.6	7	7.5	8	7.5	8.3	7.3	7.9	8.3	7.9	6	90.3
2007	7.5	6.2	6.8	7.4	8	7.5	8.2	6.3	7.9	7.9	7.5	7	88.2
2008	7.5	5.8	6.8	7.4	8	7.5	8.4	6.5	7.9	8.1	7.5	7.4	88.8
2009	8	5.3	7.2	7.5	8.3	7.6	8.3	6.5	7.6	7.7	7.3	7.8	89.1
2010	7.8	5.2	7.4	7.3	7.9	7.9	8.4	6.3	7.6	7.6	7.4	7.6	88.4

\* 이 표에서 Total은 12개 지표의 합계.

Escalation of communal group conflicts과 관련된 지표는 GG와 PS이다. GG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0점, 아시아 평균은 7.0점인데, 키르기스스탄의 경우는 7.4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보다 높다. PS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5.8점, 아시아 평균은 6.4점인데, 키르기스스탄의 경우는 6.3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 사이에 있다. 따라서 키르기스스탄은 아시아 평균보다 집단갈등을 통해 국가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State predation과 관계된 지표는 HR과 UD이다. HR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0점, 아시아 평균은 7.3점인데, 키르기스스탄의 경우는 7.6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높다. UD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8점, 아시아 평균은 7.1점인데, 키르기스스탄의 경우는 7.9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이는 state predation 방식을 통한 키르기스스탄의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Regional or guerilla rebellion과 관계된 지표는 SA와 UD인데, UD의 경우는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SA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5.7점, 아시아 평균은 6.6점인데, 키르기스스탄의 경우는 7.6점으로서 전세계 평균이나 아시아 평균보다 모두 높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regional or guerilla rebellion을 통한 국가실패의 가능성은 국제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비교해 높다는 것이다.

Democratic collapse와 관련된 지표는 FE이다. FE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1점, 아시아 평균은 7.3점인데, 키르기스스탄은 7.4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보다 높다. 이는 일반적인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키르기스스탄이 democratic collapse 방식을 통해서 국가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succession or reform crisis와 관련된 지표는 DS인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4점, 아시아 평균은 7.4점이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2010년 현재 DS의 값은 8.4점으로서 전세계 평균이나 아시아 평균보다 각기 2점, 1점이 더 높다. 이는 권력승계나 개혁 중에 키르기스스탄이 국가실패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종합하건대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전세계 평균이나 아시아 지역 평균에 비해 더 높다. 특히 권력승계나 개혁 와중에 위기가 발생하여 국가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경로별 국가실패 가능성(2010년 기준)

경로	지표	Kyrgyzstan	아시아 평균	전세계 평균
Group conflict	GG	7.4	7.0	6.0
	PS	6.3	6.4	5.8
State predation	HR	7.6	7.3	6.0
	UD	7.9	7.1	6.8
Rebellion	SA	7.6	6.6	5.7
	UD	7.9	7.1	6.8
Democratic collapse	FE	7.4	7.3	6.1
Succession or reform crisis	DS	8.4	7.4	6.4

Mongolia

Year	DP	RI	GG	HF	UD	ED	DS	PS	HR	SA	FE	EI	Total
2006	6	1	4.1	2	5.7	4.5	6.2	5.3	6.7	4.7	5	7.2	58.4
2007	6	1	4.1	2.1	5.4	5.2	6	5.3	6.7	4.8	4.9	6.9	58.4
2008	5.8	1	4.1	2.1	5.4	5.5	6	5.3	6.2	4.8	4.7	6.9	57.8
2009	5.8	1.2	4.3	2.3	5.8	5.9	6.7	5.5	6.6	5	5.7	7.1	61.9
2010	5.6	1.4	4.3	2.3	5.9	5.7	6.2	5.3	6.4	4.8	5.3	6.9	60.1

\* 이 표에서 Total은 12개 지표의 합계.

Escalation of communal group conflicts과 관련된 지표는 GG와 PS이다. GG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0점, 아시아 평균은 7.0점인데, 몽고의 경우는 4.3점으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낮다. PS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5.8점, 아시아 평균은 6.4점인데, 몽고의 경우는 5.3점으로서 이 역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낮다. 따라서 몽고가 집단간의 갈등을 통하여 국가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State predation과 관계된 지표는 HR과 UD이다. HR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0점, 아시아 평균은 7.3점인데, 몽고의 경우는 6.4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 사이에 있다. UD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8점,

아시아 평균은 7.1점인데, 몽고의 경우는 5.9점으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낮다. 따라서 state predation을 통하여 몽고가 국가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은 적어도 아시아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Regional or guerilla rebellion과 관련된 지표는 SA와 UD인데, UD의 경우는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SA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5.7점, 아시아 평균은 6.6점인데, 몽고의 경우는 4.8점으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보다 낮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몽고의 경우 regional or guerilla rebellion을 통한 국가실패의 가능성도 국제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비교해 낮다는 것이다. 몽고에서 국가실패가 발생한다면 그 유형은 regional or guerilla rebellion이 아닐 소지가 크다.

Democratic collapse와 관련된 지표는 FE이다. FE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1점, 아시아 평균은 7.3점인데, 몽고는 5.3점으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보다 낮다. 이는 몽고가 democratic collapse 방식을 통해서 국가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succession or reform crisis와 관련된 지표는 DS인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4점, 아시아 평균은 7.4점이다. 몽고의 경우 2010년 현재 DS의 값은 6.2점으로 전세계 평균이나 아시아 평균보다 낮다. 이는 권력승계나 개혁 중에 몽고가 국가실패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몽고는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전세계 평균이나 아시아 지역 평균에 비해 낮은 저 위험국가이다.

경로별 국가실패 가능성(2010년 기준)

경로	지표	Mongolia	아시아 평균	전세계 평균
Group conflict	GG	4.3	7.0	6.0
	PS	5.3	6.4	5.8
State predation	HR	6.4	7.3	6.0
	UD	5.9	7.1	6.8
Rebellion	SA	4.8	6.6	5.7
	UD	5.9	7.1	6.8
Democratic collapse	FE	5.3	7.3	6.1
Succession or reform crisis	DS	6.2	7.4	6.4

Tajikistan

Year	DP	RI	GG	HF	UD	ED	DS	PS	HR	SA	FE	EI	Total
2005	9	5	6.2	6.7	9	5.3	8.6	5	9.4	8	9.5	5	86.7
2006	7	6.6	6.2	6.5	7.4	6.8	8.9	7.5	8.6	7.5	8.7	6	87.7
2007	7.7	6.1	6.3	6.4	7.3	7.3	9	7.3	8.6	7.8	8.8	6.1	88.7
2008	7.9	6.1	6.5	6.4	7.3	7	9.2	7.1	8.8	7.8	8.6	6.2	88.9
2009	8.2	6.4	6.9	6.5	7.3	7.5	8.9	7.6	8.6	7.5	8.4	6.5	90.3
2010	8	6.2	6.9	6.3	7.1	7.5	8.9	7.3	8.7	7.3	8.4	6.6	89.2

\* 이 표에서 Total은 12개 지표의 합계.

Escalation of communal group conflicts과 관련된 지표는 GG와 PS이다. GG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0점, 아시아 평균은 7.0점인데, 타지키스탄의 경우는 6.9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 사이에 있다. PS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5.8점, 아시아 평균은 6.4점인데, 타지키스탄의 경우는 7.3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을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타지키스탄이 집단갈등을 통해서 국가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은 아시아 평균과 비슷하거나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

State predation과 관계된 지표는 HR과 UD이다. HR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0점, 아시아 평균은 7.3점인데, 타지키스탄의 경우는 8.7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각기 2.7점, 1.4점이 높다. UD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8점, 아시아 평균은 7.1점인데, 타지키스탄의 경우는 7.1점으로서 전세계 평균보다 높고, 아시아 평균과 같다. 이는 state predation 방식을 통한 타지키스탄의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아시아 평균과 비슷하거나 좀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Regional or guerilla rebellion과 관계된 지표는 SA와 UD인데, UD의 경우는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SA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5.7점, 아시아 평균은 6.6점인데, 타지키스탄의 경우는 7.3점으로서 전세계 평균이나 아시아 평균보다 높은 수치이다. 이는 타지키스탄의 경우 regional or guerilla rebellion을 통한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전세계 평균은 물론 아시아 평균에 비해서도 높은 편

이라는 것이다.

Democratic collapse와 관련된 지표는 FE이다. FE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1점, 아시아 평균은 7.3점인데, 타지키스탄은 8.4점으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보다 최대 2.3점 높다. 이는 타지키스탄이 democratic collapse 방식을 통해서 국가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succession or reform crisis와 관련된 지표는 DS인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4점, 아시아 평균은 7.4점이다. 타지키스탄의 경우 2010년 현재 DS의 값은 8.9점으로 전세계 평균이나 아시아 평균보다 최대 2.5점이나 더 높다. 이는 권력승계나 개혁 중에 타지키스탄이 국가실패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종합하건대 타지키스탄의 경우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전세계 평균이나 아시아 지역 평균에 비해 비슷하거나 더 높다. 특히 권력승계나 개혁 중에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로별 국가실패 가능성(2010년 기준)

경로	지표	Tajikistan	아시아 평균	전세계 평균
Group conflict	GG	6.9	7.0	6.0
	PS	7.3	6.4	5.8
State predation	HR	8.7	7.3	6.0
	UD	7.1	7.1	6.8
Rebellion	SA	7.3	6.6	5.7
	UD	7.1	7.1	6.8
Democratic collapse	FE	8.4	7.3	6.1
Succession or reform crisis	DS	8.9	7.4	6.4

Turkmenistan

Year	DP	RI	GG	HF	UD	ED	DS	PS	HR	SA	FE	EI	Total
2005	8	5	4.9	4.3	9	3.1	9.8	6	7.6	5	9.8	4	76.5
2006	7	4.2	5.2	6	7.2	8	9.1	7.2	9.7	8.5	8	6	86.1
2007	7	4.5	6.2	5.6	7.3	7.4	9	7.7	9.6	8.5	8.2	6.5	87.5
2008	7	4.5	6.2	5.6	7.3	7.1	8.7	7.7	9.6	8.3	7.9	6.3	86.2
2009	7	4.8	6.5	5.6	7.6	6.9	8.5	7.2	8.9	7.6	7.7	6	84.3
2010	6.8	4.6	6.3	5.4	7.4	6.6	8.4	7	9	7.7	7.7	5.6	82.5

\* 이 표에서 Total은 12개 지표의 합계.

Escalation of communal group conflicts과 관련된 지표는 GG와 PS이다. GG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0점, 아시아 평균은 7.0점인데,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는 6.3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 사이에 있다. PS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5.8점, 아시아 평균은 6.4점인데,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는 7.0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각기 1.2 점과 0.6 점이 더 높다. 관련된 두 지표 중 하나는 아시아 평균에 비해 낮고 다른 하나는 높기 때문에 투르크메니스탄이 집단적 갈등을 통해서 국가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말하기 힘들다.

State predation과 관계된 지표는 HR과 UD이다. HR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0점, 아시아 평균은 7.3점인데,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는 9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각기 3 점, 1.7 점이 높다. UD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8점, 아시아 평균은 7.1점인데,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는 7.4점으로서 이 역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보다 높다. 이는 state predation 방식을 통한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Regional or guerilla rebellion과 관계된 지표는 SA와 UD인데, UD의 경우는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SA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5.7점, 아시아 평균은 6.6점인데,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는 7.7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보다 높다. Democratic collapse와 관련된 지표는 FE이다. FE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1점, 아시아 평균은 7.3점인데, 투르크메니스탄은 7.7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보다 높다. 이는 일반적인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투르크메니스탄이 democratic collapse 방식을 통해서 국가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다소 더 큰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succession or reform crisis와 관련된 지표는 DS인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4점, 아시아 평균은 7.4점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2010년 현재 DS의 값은 8.4점으로서 전세계 평균이나 아시아 평균보다 최대 2점이 더 높다. 이는 권력승계나 개혁 중에 투르크메니스탄이 국가실패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종합하건대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아시아 지역 평균에

비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state predation이나 succession or reform crisis를 통한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로별 국가실패 가능성(2010년 기준)

경로	지표	Turkmenistan	아시아 평균	전세계 평균
Group conflict	GG	6.3	7.0	6.0
	PS	7	6.4	5.8
State predation	HR	9	7.3	6.0
	UD	7.4	7.1	6.8
Rebellion	SA	7.7	6.6	5.7
	UD	7.4	7.1	6.8
Democratic collapse	FE	7.7	7.3	6.1
Succession or reform crisis	DS	8.4	7.4	6.4

Uzbekistan

Year	DP	RI	GG	HF	UD	ED	DS	PS	HR	SA	FE	EI	Total
2005	6.5	8	6.8	6.8	9	6	9.1	5	9.6	9	9.4	8	93.2
2006	7.7	5.8	7.5	7.5	8.1	7	9.3	7	9.3	9.1	9.1	7	94.4
2007	7.7	5.4	7.1	7.1	8.6	7.5	9.2	6.8	9	8.9	9.2	7	93.5
2008	7.7	5.4	7.1	7.1	8.6	7.7	9.3	6.8	9.2	9	9.2	6.3	93.4
2009	7.9	5.3	7.4	7	8.7	7.2	9	6.6	9.2	9	9	6.5	92.8
2010	7.7	5.1	7.4	6.6	8.5	7	8.5	6.4	9.3	8.8	9	6.2	90.5

\* 이 표에서 Total은 12개 지표의 합계.

Escalation of communal group conflicts과 관련된 지표는 GG와 PS이다. GG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0점, 아시아 평균은 7.0점인데,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는 7.4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보다 높다. PS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5.8점, 아시아 평균은 6.4점인데,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는 6.4점으로서 전세계 평균보다 높고 아시아 평균과는 같다.

State predation과 관계된 지표는 HR과 UD이다. HR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0점, 아시아 평균은 7.3점인데,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는 9.3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보다 많이 높다. UD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8점, 아시아 평균은 7.1점인데,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는 8.5점으로서 이 역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더 높다. 이는 state predation 방식을 통한 우즈베키스탄의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Regional or guerilla rebellion과 관계된 지표는 SA와 UD인데, UD의 경우는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SA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5.7점, 아시아 평균은 6.6점인데,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는 8.8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보다는 높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regional or guerilla rebellion을 통한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Democratic collapse와 관련된 지표는 FE이다. FE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1점, 아시아 평균은 7.3점인데, 우즈베키스탄은 9점으로서 이 역시 높은 수치이다. 마지막으로 succession or reform crisis와 관련된 지표는 DS인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4점, 아시아 평균은 7.4점이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2010년 현재 DS의 값은 8.5점으로서 전세계 평균이나 아시아 평균보다 각기 2.1점, 1.1점 더 높다. 이는 권력승계나 개혁 중에 우즈베키스탄이 국가실패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종합하건대 우즈베키스탄은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대부분의 유형에 있어서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높은 고 위험국가이다.

경로별 국가실패 가능성(2010년 기준)

경로	지표	Uzbekistan	아시아 평균	전세계 평균
Group conflict	GG	7.4	7.0	6.0
	PS	6.4	6.4	5.8
State predation	HR	9.3	7.3	6.0
	UD	8.5	7.1	6.8
Rebellion	SA	8.8	6.6	5.7
	UD	8.5	7.1	6.8
Democratic collapse	FE	9	7.3	6.1
Succession or reform crisis	DS	8.5	7.4	6.4

## 〈남아시아〉

## Bangladesh

Year	DP	RI	GG	HF	UD	ED	DS	PS	HR	SA	FE	EI	Total
2005	8.4	7	7.6	6	9	7.4	9.5	8.2	8.5	8	8.7	6	94.3
2006	9	5.8	9.5	8.5	9	7	9	7.5	7.8	8.3	8.9	6	96.3
2007	8.6	5.8	9.6	8.4	9	6.9	9	7.4	7.8	8	9.5	5.9	95.9
2008	9.8	7.1	9.7	8.4	9	7.1	9.1	7.8	8	8.3	9.6	6.4	100.3
2009	8.9	6.9	9.4	8.4	9	8	8.5	8	7.6	8	8.9	6.5	98.1
2010	8.4	6.7	8.9	8.4	8.8	7.9	8	8.3	7.4	8.1	8.9	6.3	96.1

\* 이 표에서 Total은 12개 지표의 합계.

Escalation of communal group conflicts과 관련된 지표는 GG와 PS이다. GG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0점, 아시아 평균은 7.0점인데, 방글라데시의 경우는 8.9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각기 2.9점, 1.9점이 높다. PS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5.8점, 아시아 평균은 6.4점인데, 방글라데시의 경우는 8.3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지표 값들은 방글라데시에서 집단간의 갈등을 통한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의미한다.

State predation과 관계된 지표는 HR과 UD이다. HR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0점, 아시아 평균은 7.3점인데, 방글라데시의 경우는 7.4점으로서 전세계 평균보다는 높지만 아시아 평균과는 거의 같다. UD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8점, 아시아 평균은 7.1점인데, 방글라데시의 경우는 8.8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보다 높다. 이는 state predation 방식을 통한 방글라데시의 국가실패 가능성이 아시아 평균과 비슷하거나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Regional or guerilla rebellion과 관계된 지표는 SA와 UD인데, UD의 경우는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SA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5.7점, 아시아 평균은 6.6점인데, 방글라데시의 경우는 8.1점으로서 전세계 평균이나 아시아 평균보다 높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방글라데시의 경우 regional or guerilla rebellion을 통한 국가실패의 가능성은 국제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비교해

높은 편이라는 것이다.

Democratic collapse와 관련된 지표는 FE이다. FE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1점, 아시아 평균은 7.3점인데, 방글라데시는 8.9점으로서 전세계 평균이나 아시아 평균보다 높다. 이는 일반적인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방글라데시가 democratic collapse 방식을 통해서 국가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succession or reform crisis와 관련된 지표는 DS인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4점, 아시아 평균은 7.4점이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2010년 현재 DS의 값은 8점으로서 전세계 평균이나 아시아 평균보다 더 높다. 이는 권력승계나 개혁 중에 방글라데시가 국가실패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종합하자면 방글라데시는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전세계 평균이나 아시아 지역 평균에 비해 대부분의 유형에 있어서 더 높은 고 위험 국가이다.

경로별 국가실패 가능성(2010년 기준)

경로	지표	Bangladesh	아시아 평균	전세계 평균
Group conflict	GG	8.9	7.0	6.0
	PS	8.3	6.4	5.8
State predation	HR	7.4	7.3	6.0
	UD	8.8	7.1	6.8
Rebellion	SA	8.1	6.6	5.7
	UD	8.8	7.1	6.8
Democratic collapse	FE	8.9	7.3	6.1
Succession or reform crisis	DS	8	7.4	6.4

Bhutan

Year	DP	RI	GG	HF	UD	ED	DS	PS	HR	SA	FE	EI	Total
2005	8	8	5.5	8	9	8	9.8	5	8	6	10	6.7	92
2006	6	8.1	7	6.7	9	8	8.4	6	8.6	5	8.4	6.7	87.9
2007	6.5	7.5	7	6.7	8.7	7.9	8	6.5	8.5	4.6	8	6.5	86.4
2008	6.5	7.5	7	6.7	8.7	7.8	7.7	6.7	8.3	4.6	7.7	6.2	85.4
2009	6.5	7.5	7.9	6.8	8.7	7.5	7.4	7.2	8.4	5.5	7.7	6.2	87.3
2010	7	7.3	7.7	7.1	8.5	7.5	6.9	7.3	7.9	5.8	7.7	6.6	87.3

\* 이 표에서 Total은 12개 지표의 합계.

Escalation of communal group conflicts과 관련된 지표는 GG와 PS이다. GG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0점, 아시아 평균은 7.0점인데, 부탄의 경우는 7.7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보다 높다. PS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5.8점, 아시아 평균은 6.4점인데, 부탄의 경우는 7.3점으로서 이 역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높다. 이 두 지표의 값이 8점이나 9점 대까지 이르지 않는지만 부탄이 집단갈등을 통해서 국가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

State predation과 관계된 지표는 HR과 UD이다. HR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0점, 아시아 평균은 7.3점인데, 부탄의 경우는 7.9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UD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8점, 아시아 평균은 7.1점인데, 부탄의 경우는 8.5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높고 절대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이는 state predation 방식을 통한 부탄의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Regional or guerilla rebellion과 관계된 지표는 SA와 UD인데, UD의 경우는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SA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5.7점, 아시아 평균은 6.6점인데, 부탄의 경우는 5.8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거의 근사하고 아시아 평균보다는 낮다. 부탄의 경우 UD의 값은 높지만 SA의 값은 낮아서 regional or guerilla rebellion 경로를 통한 국가실패의 가능성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기 힘들다.

Democratic collapse와 관련된 지표는 FE이다. FE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1점, 아시아 평균은 7.3점인데, 부탄은 7.7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보다 높다. 하지만 8,9점 대까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아주 높은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succession or reform crisis와 관련된 지표는 DS인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4점, 아시아 평균은 7.4점이다. 부탄의 경우 2010년 현재 DS의 값은 6.9점으로서 전세계 평균보다는 높지만 아시아 평균보다는 낮다. 이는 권력승계나 개혁 중에 부탄이 국가실패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은 아시아 평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부탄의 경우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전세계 평균이나 아시아 지역 평균

에 비해 대부분의 유형에 있어서 더 높다. 하지만 succession or reform crisis 방식을 통한 국가실패의 가능성은 더 높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경로별 국가실패 가능성(2010년 기준)

경로	지표	Bhutan	아시아 평균	전세계 평균
Group conflict	GG	7.7	7.0	6.0
	PS	7.3	6.4	5.8
State predation	HR	7.9	7.3	6.0
	UD	8.5	7.1	6.8
Rebellion	SA	5.8	6.6	5.7
	UD	8.5	7.1	6.8
Democratic collapse	FE	7.7	7.3	6.1
Succession or reform crisis	DS	6.9	7.4	6.4

India

Year	DP	RI	GG	HF	UD	ED	DS	PS	HR	SA	FE	EI	Total
2005	8	6.2	5.4	6.7	9	5.8	4	5.1	5.9	2.4	6.8	4.2	69.5
2006	8.8	2.8	6.9	7.1	8.5	5	4.8	6.7	5.4	4.5	5.7	4.2	70.4
2007	8.3	3.2	7	7.1	8.9	4.6	4.8	6.7	5.4	5	5.6	4.2	70.8
2008	8	3.2	7	6.9	8.9	4.6	4.8	6.7	6	6.6	6	4.2	72.9
2009	8.3	4.9	7.3	6.7	8.9	5	5.5	7	6	7.1	6	5.1	77.8
2010	8.1	5.2	7.8	6.5	8.7	5.1	5.8	7.2	6.1	7.6	6.2	4.9	79.2

\* 이 표에서 Total은 12개 지표의 합계.

Escalation of communal group conflicts과 관련된 지표는 GG와 PS이다. GG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0점, 아시아 평균은 7.0점인데, 인도의 경우는 7.8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다소 높다. PS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5.8점, 아시아 평균은 6.4점인데, 인도의 경우는 7.2점으로서 이 역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높다. 하지만 두 지표 모두 7점 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집단갈등을 통해 국가가 실패할 가능성이 절대적 수준에서도 많이 높은 것은 아니다.

State predation과 관계된 지표는 HR과 UD이다. HR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0점, 아시아 평균은 7.3점인데, 인도의 경우는 6.1점으로서 전세계 평균보다 약간 높다. UD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8점, 아시아 평균은 7.1점인데, 인도의 경우는 8.7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확

실하게 높다. HR의 수준은 낮은 편이고, UD의 수치는 높기 때문에 명확하게 state predation 방식을 통한 인도의 국가실패의 가능성을 명확하게 높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UD 8.7점은 절대적으로도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위험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Regional or guerilla rebellion과 관계된 지표는 SA와 UD인데, UD의 경우는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SA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5.7점, 아시아 평균은 6.6점인데 인도의 경우는 7.6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보다 높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인도의 경우 regional or guerilla rebellion을 통한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는 것이다.

Democratic collapse와 관련된 지표는 FE이다. FE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1점, 아시아 평균은 7.3점인데, 인도는 6.2점으로서 전세계 평균보다는 높지만 아시아 평균보다는 낮다. 이는 일반적인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인도가 democratic collapse 방식을 통해서 국가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succession or reform crisis와 관련된 지표는 DS인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4점, 아시아 평균은 7.4점이다. 인도의 경우 2010년 현재 DS의 값은 5.8점으로서 전세계 평균이나 아시아 평균보다 낮다. 이는 권력승계나 개혁 중에 인도가 국가실패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

종합하건대 인도의 경우 집단갈등이나 봉기를 통한 국가실패의 가능성은 전세계 평균이나 아시아 지역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다른 유형의 국가실패, 특히 권력계승이나 개혁 위기를 통한 국가실패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경로별 국가실패 가능성(2010년 기준)

경로	지표	India	아시아 평균	전세계 평균
Group conflict	GG	7.8	7.0	6.0
	PS	7.2	6.4	5.8
State predation	HR	6.1	7.3	6.0
	UD	8.7	7.1	6.8
Rebellion	SA	7.6	6.6	5.7
	UD	8.7	7.1	6.8
Democratic collapse	FE	6.2	7.3	6.1
Succession or reform crisis	DS	5.8	7.4	6.4

Maldives

Year	DP	RI	GG	HF	UD	ED	DS	PS	HR	SA	FE	EI	Total
2007	8	7	4.9	7	4.9	7.3	7.9	7.1	7.7	6.1	7.2	6	81.1
2008	7.7	6.5	4.9	7	4.9	7.1	7.6	7.1	7.7	6.3	7.6	6	80.4
2009	6.5	6.5	5.2	7	5.2	6.7	7.2	7.3	7.5	6.3	7.4	6	78.8
2010	6.3	6.4	5.2	7.1	5.3	7	7.3	7.1	7.3	6.1	7.4	5.8	78.3

\* 이 표에서 Total은 12개 지표의 합계.

Escalation of communal group conflicts과 관련된 지표는 GG와 PS이다. GG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0점, 아시아 평균은 7.0점인데, 몰디브의 경우는 5.2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낮다. PS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5.8점, 아시아 평균은 6.4점인데, 몰디브의 경우는 7.1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집단갈등과 관련된 한 지표는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서 낮고, 다른 지표는 높기 때문에 집단 갈등을 통한 국가실패의 가능성에 관하여 명확하게 말하기 힘들다.

State predation과 관계된 지표는 HR과 UD이다. HR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0점, 아시아 평균은 7.3점인데, 몰디브의 경우는 7.3점으로서 전세계 평균보다는 높지만 아시아 평균과 같다. UD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8점, 아시아 평균은 7.1점인데, 몰디브의 경우는 5.3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는 state predation 방식을 통한 몰디브의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Regional or guerilla rebellion과 관계된 지표는 SA와 UD인데, UD의 경우는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SA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5.7점, 아시아 평균은 6.6점인데, 몰디브의 경우는 6.1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 사이에 있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몰디브의 경우 regional or guerilla rebellion을 통한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서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몰디브에서 국가실패가 발생한다면 그 유형은 regional or guerilla rebellion이 아닐 소지가 크다.

Democratic collapse와 관련된 지표는 FE이다. FE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

계 평균은 6.1점, 아시아 평균은 7.3점인데, 몰디브는 7.4점으로 전세계 평균보다 1점 이상 높고 아시아 평균보다도 근소하게 높다. 이는 일반적인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몰디브가 democratic collapse 방식을 통해서 국가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7.4점은 절대적으로는 아주 높은 수치는 아니다. 마지막으로 succession or reform crisis와 관련된 지표는 DS인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4점, 아시아 평균은 7.4점이다. 몰디브의 경우 2010년 현재 DS의 값은 7.3점으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 사이에 있다. 이는 권력 승계나 개혁 중에 몰디브가 국가실패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아시아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더 높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하건대 몰디브의 경우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아시아 지역 평균에 비해 대부분의 유형에 있어서 낮거나 비슷하다.

경로별 국가실패 가능성(2010년 기준)

경로	지표	Maldives	아시아 평균	전세계 평균
Group conflict	GG	5.2	7.0	6.0
	PS	7.1	6.4	5.8
State predation	HR	7.3	7.3	6.0
	UD	5.3	7.1	6.8
Rebellion	SA	6.1	6.6	5.7
	UD	5.3	7.1	6.8
Democratic collapse	FE	7.4	7.3	6.1
Succession or reform crisis	DS	7.3	7.4	6.4

Nepal

Year	DP	RI	GG	HF	UD	ED	DS	PS	HR	SA	FE	EI	Total
2005	9	8	5.6	4	9	7.1	8.9	6	9.1	7.6	8	6.7	89
2006	8.5	4.8	9.2	6	9.2	8.5	9.2	6.2	9.1	9	9	6.7	95.4
2007	8.1	5.2	8.9	6.1	9.2	8.2	8.5	6.6	8.8	8.3	8.5	7.2	93.6
2008	8.1	5.5	9	6.1	9.2	8.2	8.3	7	8.8	8.5	8.3	7.2	94.2
2009	8.3	6.8	8.7	6	9.3	8.5	8	7.4	8.7	8.1	8.4	7.2	95.4
2010	8.1	7	9.2	6.2	9	8.3	8.1	7.6	8.7	7.7	8.5	7	95.4

\* 이 표에서 Total은 12개 지표의 합계.

Escalation of communal group conflicts과 관련된 지표는 GG와 PS이다. GG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0점, 아시아 평균은 7.0점인데, 네팔의 경우는 9.2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최대 3.2점이 높다. PS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5.8점, 아시아 평균은 6.4점인데, 네팔의 경우는 7.6점으로서 이 역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높다. 이러한 지표 값이 의미하는 것은 네팔이 집단간의 갈등을 통해서 국가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State predation과 관계된 지표는 HR과 UD이다. HR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0점, 아시아 평균은 7.3점인데, 네팔의 경우는 8.7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최대 2.7점이 높다. UD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8점, 아시아 평균은 7.1점인데, 네팔의 경우는 9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각기 2.2점과 1.9점이 더 높다. 이는 state predation 방식을 통한 네팔의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Regional or guerilla rebellion과 관계된 지표는 SA와 UD인데, UD의 경우는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SA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5.7점, 아시아 평균은 6.6점인데, 네팔의 경우는 7.7점으로서 전세계 평균이나 아시아 평균보다 높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네팔의 경우 regional or guerilla rebellion을 통한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Democratic collapse와 관련된 지표는 FE이다. FE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1점, 아시아 평균은 7.3점인데, 네팔은 8.5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보다 높다. 마지막으로 succession or reform crisis와 관련된 지표는 DS인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4점, 아시아 평균은 7.4점이다. 네팔의 경우 2010년 현재 DS의 값은 8.1점으로서 전세계 평균이나 아시아 평균보다 높다. 이는 권력승계나 개혁 중에 네팔이 국가실패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종합하건대 네팔은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전세계 평균이나 아시아 지역 평균에 비해 대부분의 유형에 있어서 더 높은 고 위험국가이다.

경로별 국가실패 가능성(2010년 기준)

경로	지표	Nepal	아시아 평균	전세계 평균
Group conflict	GG	9.2	7.0	6.0
	PS	7.6	6.4	5.8
State predation	HR	8.7	7.3	6.0
	UD	9	7.1	6.8
Rebellion	SA	7.7	6.6	5.7
	UD	9	7.1	6.8
Democratic collapse	FE	8.5	7.3	6.1
Succession or reform crisis	DS	8.1	7.4	6.4

Pakistan

Year	DP	RI	GG	HF	UD	ED	DS	PS	HR	SA	FE	EI	Total
2005	5	5	6.9	8	9	3.3	9.8	7.5	8.1	9	9.3	8.5	89.4
2006	9.3	9.3	8.6	8.1	8.9	7	8.5	7.5	8.5	9.1	9.1	9.2	103.1
2007	8.2	8.5	9	8.1	8.5	5.8	8.7	7.1	8.7	9.5	9.5	8.5	100.1
2008	8	8.6	9.5	8.1	8.8	6.2	9.5	7.1	9.5	9.6	9.8	9.1	103.8
2009	8.3	8.6	9.6	8.3	8.8	6.4	9.1	7.5	8.9	9.5	9.6	9.5	104.1
2010	8.1	8.9	9.4	7.9	8.4	6.2	8.9	7.3	8.9	9.7	9.5	9.3	102.5

\* 이 표에서 Total은 12개 지표의 합계.

Escalation of communal group conflicts과 관련된 지표는 GG와 PS이다. GG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0점, 아시아 평균은 7.0점인데, 파키스탄의 경우는 9.4점으로써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각기 3.4점, 2.4점이 높다. PS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5.8점, 아시아 평균은 6.4점인데, 파키스탄의 경우는 7.3점으로써 이 또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높다. 이러한 높은 지표 값들은 파키스탄이 집단갈등을 통한 국가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그리고 아마도 절대적으로도-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State predation과 관계된 지표는 HR과 UD이다. HR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0점, 아시아 평균은 7.3점인데, 파키스탄의 경우는 8.9점으로써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각기 2.9점, 1.6점이 높다. UD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8점, 아시아 평균은 7.1점인데, 파키스탄의 경우는 8.4점으로써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더 높다. 이는 state predation 방식을 통한 파키스탄의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Regional or guerilla rebellion과 관계된 지표는 SA와 UD인데, UD의 경우는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SA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5.7점, 아시아 평균은 6.6점인데, 파키스탄의 경우는 9.7점으로서 대단히 높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파키스탄의 경우 regional or guerilla rebellion을 통한 국가실패의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는 것이다.

Democratic collapse와 관련된 지표는 FE이다. FE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1점, 아시아 평균은 7.3점인데, 파키스탄은 9.5점으로서 이 역시 대단히 높다. 이는 파키스탄이 democratic collapse 방식을 통해서 국가실패를 경험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succession or reform crisis와 관련된 지표는 DS인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4점, 아시아 평균은 7.4점이다. 파키스탄의 경우 2010년 현재 DS의 값은 8.9점으로서 전세계 평균이나 아시아 평균보다 높다. 이는 권력승계나 개혁 중에 파키스탄이 국가실패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종합하건대 파키스탄의 경우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모든 유형에 있어서 높다. 특히 몇몇 지표의 값은 9점을 초과하고 있어서 관련된 유형의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경로별 국가실패 가능성(2010년 기준)

경로	지표	Pakistan	아시아 평균	전세계 평균
Group conflict	GG	9.4	7.0	6.0
	PS	7.3	6.4	5.8
State predation	HR	8.9	7.3	6.0
	UD	8.4	7.1	6.8
Rebellion	SA	9.7	6.6	5.7
	UD	8.4	7.1	6.8
Democratic collapse	FE	9.5	7.3	6.1
Succession or reform crisis	DS	8.9	7.4	6.4

## Sri Lanka

Year	DP	RI	GG	HF	UD	ED	DS	PS	HR	SA	FE	EI	Total
2006	8	8.2	9.1	6.7	8	5.7	8.6	7	7.2	8.5	8.9	6.5	92.4
2007	7	8.6	9.5	6.9	8.2	6	8.9	6.5	7.5	8.7	9.2	6.1	93.1
2008	7	9	9.8	6.9	8.2	6	9.2	6.6	8	9.3	9.5	6.1	95.6
2009	7.5	9.3	9.8	6.9	8.5	6.1	9	6.6	8.5	9.2	9.2	6.1	96.7
2010	7.3	9.4	9.6	6.7	8.7	5.9	8.6	6.4	8.8	8.5	9.4	6.4	95.7

\* 이 표에서 Total은 12개 지표의 합계.

Escalation of communal group conflicts과 관련된 지표는 GG와 PS이다. GG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0점, 아시아 평균은 7.0점인데, 스리랑카의 경우는 9.6점으로서 대단히 높다. PS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5.8점, 아시아 평균은 6.4점인데, 스리랑카의 경우는 6.4점으로서 전세계 평균보다는 높지만 아시아 평균과는 같다. 두 지표의 값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집단 간의 갈등을 통해서 국가실패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기 힘들지만 GG의 값이 9.6점에 이른다는 사실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State predation과 관계된 지표는 HR과 UD이다. HR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0점, 아시아 평균은 7.3점인데, 스리랑카의 경우는 8.8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보다 높다. UD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8점, 아시아 평균은 7.1점인데, 스리랑카의 경우는 8.7점으로서 전세계 평균과 아시아 평균에 비해 역시 높다. 이는 state predation 방식을 통한 스리랑카의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Regional or guerilla rebellion과 관계된 지표는 SA와 UD인데, UD의 경우는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SA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5.7점, 아시아 평균은 6.6점인데, 스리랑카의 경우는 8.5점으로서 전세계 평균이나 아시아 평균보다 높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스리랑카의 경우 regional or guerilla rebellion을 통한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국제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비교해 높다는 것이다. 지표 값들이 8점을 넘기 때문에 스리랑카에서 국가실패가 발생한다면 그 유형은 regional or guerilla rebellion일 소지가 크다.

Democratic collapse와 관련된 지표는 FE이다. FE의 경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1점, 아시아 평균은 7.3점인데, 스리랑카는 9.4점으로서 대단히 높다. 이는 스리랑카가 democratic collapse 방식을 통해서 국가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succession or reform crisis와 관련된 지표는 DS인데, 2010년 현재 전세계 평균은 6.4점, 아시아 평균은 7.4점이다. 스리랑카의 경우 2010년 현재 DS의 값은 8.6점으로서 전세계 평균이나 아시아 평균보다 높다. 이는 권력승계나 개혁 중에 스리랑카가 국가실패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국제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비교해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하건대 스리랑카의 경우 국가실패의 가능성이 전세계 평균이나 아시아 지역 평균에 비해 모든 유형에 있어서 더 높다. 특히 9점을 초과하는 지표가 둘이나 있어서 국가실패가 추상적인 가능성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경로별 국가실패 가능성(2010년 기준)

경로	지표	Sri Lanka	아시아 평균	전세계 평균
Group conflict	GG	9.6	7.0	6.0
	PS	6.4	6.4	5.8
State predation	HR	8.8	7.3	6.0
	UD	8.7	7.1	6.8
Rebellion	SA	8.5	6.6	5.7
	UD	8.7	7.1	6.8
Democratic collapse	FE	9.4	7.3	6.1
Succession or reform crisis	DS	8.6	7.4	6.4

## VI. 결론을 대신하여

우리의 국력이 증가하고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우리 기업과 국민의 활동범위가 전세계로 확장되고 있다. 활동범위의 증가는 새로운 기회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기업과 국민이 대응해야 하는 각종 리스크 또한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 국력의 신장, 활동범위의 확장에 따라 우리 기업과 국민이 당면하게 되는 리스크에 대해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대응할 것을 제안하고, 그 기초작업으로서 다른 나라의 국가위험의 현황과 수준을 살펴보았다.

아시아는 우리나라가 위치한 지역이고 서구를 대체하여 세계경제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국력신장이나 기업성장, 그리고 국민 활동영역의 차원에서 아시아의 중요성은 재론할 필요가 없지만, 이 논문의 분석에 따르면 아시아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고 위험지역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표는 지역별로 국가실패의 5가지 유형에 관계된 지표들의 평균을 구하고 순위를 매긴 것이다. 아시아 지역의 평균점수는 아프리카나 CIS의 다음으로 높다. 광의로 정의한 아시아에는—즉 중앙 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에는—CIS 국가들도 포함된다. 이 점을 생각하면 아시아는 이 표에서 보여주는 것보다도 더 고 위험지역일 수도 있다.

국가실패 경로 관련 7개 지표 합계 지역별 순위

지역	7개 지표 합계
Africa	51.6
CIS	50.6
Asia	49.0
Middle East	47.7
Latin America	41.4
Oceania	37.5
Europe	25.8
North America	19.3

\* 2010년 현재

\*\* 7개 지표는 GG, PS, HR, SA, UD, FE, DS.

그렇다고 해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다 고 위험국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논문의 분석을 통해서 확인한 사실은 국가위험의 수준이 지역별로, 국가별로 차이가 나며 그러한 차이가 지속된다는 것이다. 다음의 표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아시아 지역 내 개별국가들의 국가위험 수준을 잘 이해하고 개별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잘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국가실패 경로 관련 7개 지표 합계 국가별 순위

국가	7개 지표 합계
Afghanistan	65.1
Pakistan	62.1
Myanmar	61.6
North Korea	60.9
Sri Lanka	60
Nepal	58.8
Bangladesh	58.4
East Timor	56.8
China	54.3
Laos	53.6
Philippines	53.3
Cambodia	52.8
Bhutan	51.8
Thailand	51.1
India	49.4
Indonesia	48.7
Brunei Darussalam	45.8
Vietnam	45.8
Maldives	45.7
Malaysia	43.5
Mongolia	38.2
Singapore	21.9
South Korea	20.5
Japan	16.8

\* 2010년 현재

\*\* 7개 지표는 GG, PS, HR, SA, UD, FE, DS.

\*\*\* CIS 국가 비포함

## 참고문헌

수출입은행, 『세계국가편람』, 수출입은행, 각년호

이성우, 『세계평화지수 연구』, 도서출판 오름, 2009

조양현, “국가위험(Country Risk) 평가의 최근 방법론,” 제주평화연구원 발표문  
2010년 12월.

Carment, David, Yiagadeesen Samy, and Stewart Prest, “State Fragility and Implications for Aid Allocation: An Empirical Analysis,”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25, pp. 349-373.

Chauvet, Lisa, and Paul Collier, “What are the Preconditions for Turnarounds in Failing States?”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25, pp. 332-348.

Foreign Policy and the Fund for Peace, “Failed States Index FAQ,” [http://www.fundforpeace.org/web/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102&Itemid=891](http://www.fundforpeace.org/web/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102&Itemid=891)

\_\_\_\_\_, “The Failed States Index 2005,” [http://www.fundforpeace.org/web/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103&Itemid=325](http://www.fundforpeace.org/web/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103&Itemid=325)

\_\_\_\_\_, “The Failed States Index 2006,” [http://www.fundforpeace.org/web/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104&Itemid=324](http://www.fundforpeace.org/web/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104&Itemid=324)

\_\_\_\_\_, “The Failed States Index 2007,” [http://www.fundforpeace.org/web/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229&Itemid=366](http://www.fundforpeace.org/web/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229&Itemid=366)

\_\_\_\_\_, “The Failed States Index 2008,” [http://www.fundforpeace.org/web/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292&Itemid=452](http://www.fundforpeace.org/web/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292&Itemid=452)

\_\_\_\_\_, “The Failed States Index 2009,” [http://www.fundforpeace.org/web/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391&Itemid=549](http://www.fundforpeace.org/web/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391&Itemid=549)

\_\_\_\_\_, “The Failed States Index 2010,” [http://www.fundforpeace.org/web/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452&Itemid=900](http://www.fundforpeace.org/web/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452&Itemid=900)

- Goldstone, Jack, "Pathways to State Failure,"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25, pp. 285-296.
- \_\_\_\_\_, "Us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odels in Forecasts of Instability," *U.S. Institute of Peace Special Report*, No. 204, March 2008
- Goldstone, Jack, Robert Bates, Ted Robert Gurr, Michael Lustik, Monty G. Marshall, Jay Ulfelder, and Mark Woodward, "A Global Forecasting Model of Political Instability," *Political Instability Task Force Phase V Findings*, 2005
- Gourevitch, Alex, "The Myth of the Failed State: Intervention and Third World Sovereignty"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Honolulu, Hawaii, Mar 05, 2005
- Helman, G. B. and S. R. Ratner, "Saving Failed States," *Foreign Policy*, 89 3-1.
- Kaplan, Robert, "The Coming Anarchy," *Atlantic Monthly*, 1994
- Marshall, Monty, and Benjamin R. Cole, *State Fragility Index and Matrix 2009*, Center for Systemic Peace, <http://www.systemicpeace.org/SFImatrix2009c.pdf>
- Patrick, Stewart, "Weak States and Global Threats: Fact or Fiction?," *The Washington Quarterly*, Spring 2006, pp. 27-53.
- Prest, Stewart, John Gazo, and David Carment, "Working out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Fragile States: The British, American and German Experience," Paper presented on the conference on Canada's policy towards fragile, failed and dangerous states, November 25, 2005.
- Rice, Susan & Patrick Stewart, *Index of State Weakness in the Developing World*,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2008
- USAID, *Measuring Fragility: Indicators and Methods for Rating State Performance*, Washington, D.C.: USAID, 2005.
- Wyler, Liana Sun, "Weak and Failing States: Evolving Security Threats and U.S. Policy," *CRS Report for Congress*, 2008

## 〈부록〉 지역별 국가리스트

### Asia

Afghanistan	Bangladesh	Bhutan	Brunei Darussalam
Cambodia	China	East Timor	India
Japan	Laos	Malaysia	Maldives
Myanmar	Nepal	North Korea	Pakistan
Singapore	South Korea	Sri Lanka	Thailand
			Vietnam

### Oceania

Australia	Fiji	Micronesia	New Zealand
Papua New Guinea		Samoa	Solomon Island

### Middle East

Algeria	Bahrain	Egypt	Iran	Iraq
Israel	Jordan	Kuwait	Lebanon	Libya
Morocco	Oman	Qatar	Saudi Arabia	Syria
Tunisia	United Arab Emirates		Yemen	

### Africa

Angola	Benin	Botswana	Burkina Faso	Burundi
Cameroon	Cape Verde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omoros	Cote d'Ivoire	Dem. Rep. of Congo	Djibouti	
Equatorial Guinea		Eritrea	Ethiopia	Gabon
Gambia	Ghana	Guinea	Guinea Bissau	
Kenya	Lesotho	Liberia	Madagascar	Malawi
Mali	Mauritania	Mauritius	Mozambique	Namibia
Niger	Nigeria	Republic of Congo		Rwanda
Sao Tome	Senegal	Seychelles	Sierra Leone	Somalia
South Africa	Sudan	Swaziland	Tanzania	Togo
Uganda	Zambia	Zimbabwe		

### North America

Canada	United States
--------	---------------

### Latin America

Antigua and Barbuda	Argentina	Bahamas	Barbados
---------------------	-----------	---------	----------

Belize	Bolivia	Brazil	Chile	Colombia
Costa Rica	Cuba	Dominican Republic		Ecuador
El Salvador	Grenada	Guatemala	Guyana	Haiti
Honduras	Jamaica	Mexico	Nicaragua	Panama
Paraguay	Peru	Suriname	Trinidad and Tobago	
Uruguay	Venezuela			

**Europe**

Albania	Austria	Belgium	Bosnia and Herzegovina	
Bulgaria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taly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acedonia	Malta
Montenegro	Netherlands	Norway	Poland	Portugal
Romania	Serbia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nited Kingdom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CIS)**

Armenia	Azerbaijan	Belarus	Georgia	Kazakhstan
Kyrgyzstan	Moldova	Russia	Tajikistan	Turkmenistan
Ukraine	Uzbekistan			



# 국가위험(Country Risk) 평가의 최근 방법론

조양현(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부실장)



## I. 서론 및 연구배경

2007년 여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가 서유럽, 동유럽 및 남유럽 지역의 경제위기로 전이되었고, 2010년 하반기에는 유로존(Eurozone)<sup>1</sup> 재정위기로 확산되었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2011년 세계 경제전망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이런 가운데,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은 경제위기국 정부채권에 대한 신용등급을 산발적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2008~10년 국제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한 양상을 나타냈다. 유럽연합(EU) 등 지역통합체<sup>2</sup>들은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그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은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에 아직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의 연구목적은 국가위험 평가방법론의 고찰을 통해 국제금융시장이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기존의 평가방법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채권 신용평가기관인 S&P 및 무디스(Moody's)의 정부채권 평가기법을 살펴보고, 이들 평가기관 이외에도 최근 국제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국가위험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기법을 추가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다만, 정부채권 및 국가위험 평가기관들이 평가결과를 공개하더라도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과정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제약조건 하에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수 가능한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공개된 자료에 근거하여 평가기관별 평가방법론에 관하여 다루고자 한다.

## II. 정부채권 신용평가기관의 평가기법

흔히 3대 신용도 평가기관으로 일컬어지는 S&P, 무디스(Moody's) 및 피치(Fitch)는 국제 자본시장에서 채권 발행정부의 채무상환 능력(capacity)과 의지(willingness)를 측정한다.<sup>3</sup> 이들 기관의 평가결과는 국제 자본시장에서 채권발

<sup>1</sup> 유로화를 자국내 법정통화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로서 현재 EU-27개국 중에서 16개국이 해당됨.

<sup>2</sup> 유로존 재정위기로 EU, ECB 등은 S&P, Moody's 등의 평가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함.

행 정부의 자금차입을 위한 조달금리(spread)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sup>4</sup> 1997년 아시아 외환·금융위기 당시에도 S&P, 무디스 등의 신용평가기관들이 경제위기국의 신용등급을 대폭 하향조정 한 사례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가 많았다.

## 1. S&P(Standard & Poor's)

S&P는 1860년 헨리 푸어(Henry Varnum Poor)가 미국의 철도·운하 역사서 편찬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알 권리”에 기초한 금융정보 회사를 설립하면서 유래 된다. 이후 S&P는 1916년부터 86개 국가에서 발행된 채권 위험수준을 평가하는 민간 신용평가기관으로 성장하였고, 1927년에는 채권발행 정부에 대한 신용평가 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 1941년 스탠더드 통계회사(Standard Statistics)와 푸어스 출판사(Poor's Publishing)가 합병하여 현재의 S&P로 출범하였고, 1966년에는 다국적 정보서비스 회사인 맥그로힐(McGraw-Hill Companies)<sup>5</sup>에 인수 되었다. S&P는 2,000여개 기업발행 채권과 8,000여개 (지방)정부발행 채권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다.<sup>6</sup>

국가위험도 평가와 관련하여, S&P는 2010년 말 기준으로 125개국의 외화표시 장기 정부채권에 대한 위험수준을 평가하면서 당해 정부의 채무 상환능력과 의지를 측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표 1>은 S&P가 반영하고 있는 국가위험 정량분석 평가요소를 정리한 것이다. S&P는 국제금융시장의 통합진전과 단기 유동성자금을 포함한 포트폴리오 투자 증가 등으로 인한 민간자본 흐름의 급격한 변동 등 국제금융시장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외환보유액 수준(단기외채 감안),

<sup>3</sup> “an assessment of each government's ability and willingness to service its debt in full and on time” (Standard & Poor's, 2002).

<sup>4</sup> 일례로 2005년 7년 만기 정부채권 발행 시 국제자본시장 평균 차입비용은 기재국의 신용등급에 따라 A등급 27bp, BBB-등급 55bp, BB+등급 146bp, CCC+등급 577bp로 격차가 발행함(World Bank, 2007).

<sup>5</sup> 1888년에 설립되어 Business Week, McGraw-Hill Education 등의 자회사를 운영함.

<sup>6</sup> S&P 500은 주요 포트폴리오 투자지수로 이용되고 있으며, S&P Global 1200은 글로벌 자본시장의 70%를 커버하고 있음.

과거의 자본흐름과 외국인 주식투자 비중 등을 주요 평가요소로 반영하고 있다.

<표 1> S&P의 정량분석 평가요소

위험지표	평가요소
국내경제 (Domestic Economy)	GDP 규모, 1인당 GDP, 총저축/GDP, 총투자/GDP, 실질GDP 성장률, 실질 투자증가율, 실업률, 소비자물가상승률, 국내여신증가율, 우발채무/GDP
정부재정 (General Government)	순채무/GDP, (총채무-금융자산)/GDP, 총채무/GDP, 재정수지/GDP, (재정수지-이자지급액)/GDP, 재정수입/GDP, 재정지출/GDP, 채무 이자지급액/GDP
국제수지 (Balance-of-Payments)	총수출/GDP, 실질 총수출증가율, 경상수지/GDP, 경상수지/총수출, 순차입/총수출, 외환보유액/총수입, 총차입요구액/(총수출+외환보유액), 순FDI/GDP
대외수지 (External Balance Sheet)	순대외부채/GDP, 총외채/총수출, 총공적외채/총수출, 순외채/총수출, 순공적외채/총수출, 비거주자 순요소소득 지급액/총수출, 비거주자 순이자지급액/총수출

자료: S&P, "Sovereign Risk Indicators", Jan. 8, 2007.

S&P의 평가기법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하고 있는데, 정성평가는 경제 정책 성과, 우발채무 및 정치변화 등에 대한 질적 분석이며 정량평가는 평가요소 중 지수화가 가능한 항목에 대한 분석이다. 즉, 정량평가에서 외환보유액 대비 금융차입요구액<sup>7</sup>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향이 있거나 정성평가에서 관계법령의 경직성, 예산 부족 등으로 재정정책의 유연성이 미흡한 국가를 투기등급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S&P는 <표 2>에서 제시된 10개 분야의 정성분석 위험지표에 대해 최고 1에서 최저 6까지의 점수를 부여한 다음, 외화표시 장기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전망치와 더불어 22개의 단계로 분류하고 있다.<sup>8</sup>

<sup>7</sup> 경상수지 적자, 비거주자 단기부채 및 중장기 만기도래 외채 포함.

<sup>8</sup> S&P는 장기채 등급을 AAA(extremely strong capacity), AA+, AA(very strong), AA-, A+, A(strong), A-, BBB+, BBB(adequate), BBB-, BB+, BB(could be faced with inadequate capacity), BB-, B+, B(same as BB but still more vulnerable), B-, CCC+, CCC(currently vulnerable), CCC-, CC(highly vulnerable), SD>Selective Default), D(default)로 분류하고 있으며 BB+ 이하는 투기등급(speculative cohort)임. 전망치(1989년 도입)는 Positive, Negative, Stable(not likely to change), Developing(Positive or Negative), Not Meaningful로 분류됨.

&lt;표 2&gt; S&amp;P의 정성분석 평가요소

평가분야	평가요소
정치적 위험 (Political Risk)	정부의 형태 및 정치기구의 적합성, 대중의 정치참여도 정권유지의 정통성, 경제여건에 대한 정치적 영향, 경제정책 목표에 대한 투명성, 대내외 안보 위험, 지정학적 위험
소득 및 경제구조 (Economic Structure)	경제발전 및 시장경제화 정도, 경제시스템의 성숙도, 민간부문의 과다차입 등 잠재적 취약성, 소득 불평등, 금융부문의 효과적인 자금조달, 민간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 공공부문의 효율성, 보호주의와 그 영향, 노동시장 유연성
경제성장 전망 (Economic Growth Prospects)	저축·투자의 규모 및 구성, 잠재 경제성장률과 성장패턴
재정정책 유연성 (Fiscal Flexibility)	정부재정 운영실적 및 재정수지 추이, 재정수입 유연성 및 효율성, 재정지출 효과성 및 압력, 보고의 시기, 범위 및 투명성, 연금 지급부담
공적채무 부담 (General Government Debt Burden)	정부채무/GDP, 재정수입의 지급이자 부담률, 통화구성 및 만기 구조, 자본시장의 규모
우발채무 (Offshore and Contingent Liabilities)	공기업의 규모 및 건전성, 금융부문의 건전성
통화정책 유연성 (Monetary Flexibility)	소비자물가 추이, 통화 및 여신 증가율, 환율 체계 및 통화정책의 양립성, 중앙은행 독립성 등 제도적인 요인, 통화정책 수단의 범위 및 효율성
대외 유동성 (External Liquidity)	재정·통화정책의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 경상수지의 구조, 자본유입의 구성, 외환보유액의 적정수준(대외 차입수요), 외자의존도, 외부충격 대처능력
공공부문 외채부담 (Public External Debt Burden)	공공부문의 금융자산 및 외채규모, 외채 만기구조, 통화 구성 및 이자율 변화 민감도, 양허성 자금조달 가능성
민간부문 외채부담 (Private External Debt Burden)	비거주자 차입·예금·대출현황, 금융기관 및 민간기업 외채규모, 외채 만기구조, 통화 구성·이자율변화 민감도, 양허성 자금조달 가능성

자료: S&P, "Sovereign Credit Ratings", March 15, 2004.

## 2. 무디스(Moody's)

미국 뉴욕의 무디스(Moody's Corporation)는 1841년에 설립된 국제적인 상사 신용조사 전문기관인 D&B (Dun & Bradstreet)의 자회사였으나, 2000년 9월 이후 독립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1900년 통계학자 존 무디(John Moody)가 산업 증권매뉴얼('Moody's Manual of Industrial and Miscellaneous Securities')<sup>9</sup>을 발간하면서 유명해졌다. 1909년에는 Aaa 등의 기호를 사용하여 철도채권을 공식적으로 평가하였고 200여개 철도회사 등 1,500 종류의 채권가치와 기업실적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1914년 7월 1일에는 무디스 투자자서비스(Moody's Investors Service)로 정식 발족되어 평가대상을 미국 도시 및 지방자치단체 발행 채권으로 확대하였다. 무디스는 1924년 평가대상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미국 채권시장의 대부분을 무디스가 평가할 정도로 명성을 획득하였으며, 국제금융시장에서 발행된 유가증권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를 Global Ratings Guide 등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

무디스의 국가위험도 평가등급은 장기채권 발행 정부에 대한 채무불이행 가능성과 금융손실을 반영하고 있다. 평가 대상국은 일정치 않으나 2010년 말 기준으로 110개국 내외이고, 국가위험도에 해당하는 외화표시 장기 정부채권의 평가등급은 21개의 단계로 분류되어 있다.<sup>10</sup> 등급별 채무불이행 가능성은 최고등급인 Aaa는 5년 이내 0.1%, 10년 이내 1% 미만인 경우이고, B등급은 5년 이내 28%, 10년 이내 40%인 경우 등이다. 사후관리(Rating Watch) 등급은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Upgrade는 등급 상향조정, Downgrade는 등급 하향조정을 검토 중이며, Uncertain은 전망이 불투명하여 등급변경 가능성이 상존하는 경우 등으로 대별된다.

<sup>9</sup> 금융기관, 공공기관, 제조업, 광업, 서비스업 및 식료품 관계 회사에 대한 증권·채권 정보 및 통계 자료 수록

<sup>10</sup> Moody's의 장기채 등급은 Aaa(best quality), Aa1, Aa2(high quality), Aa3, A1, A2(strong payment capacity), A3, Baa1, Baa2(adequate payment capacity), Baa3, Ba1(moderate protection of interest and principal payments), Ba2, Ba3, B1, B2(small assurance of interest and principal payments), B3, Caa1, Caa2(likely to be or already in default), Caa3, Ca, C(lowest rated class of bonds and typically in default or other market shortcoming)로 구성되며 투기등급(speculative grading ratings)은 Ba1 이하임.

무디스의 평가방법은 채권발행 주체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하여 자본유입 수준·예상 등을 기초로 외채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외채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당해 정부의 외환유동성 상황, 회계기준의 국제기준과의 부합정도, 정부의 재정운용능력, 규제적인 정부정책의 실태와 효과 등으로 분석된다.

<표 3> Moody's의 정량분석 평가요소

위험 지표	평가 요소
경제 구조·성과 (Economic Structure and Performance)	경상 국내총생산(GDP), 인구 규모, 1인당 GDP(경상환율,PPP), 경상GDP 성장률, 실질GDP 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업률, 총투자/GDP, 총국내저축/GDP, 경상 총수출증가율, 경상 총수입증가율, 실질 총수출증가율, 실질 총수입증가율, 상품·서비스 순수출/GDP, 경제개방화 정도(=무역의존도=교역규모/GDP)
정부재정 (Government Finance)	재정수입/GDP, 재정지출/GDP, 재정수지/GDP, 정부채무, 정부채무/GDP, 정부채무/재정수입, 정부채무이자지급/재정수입, 정부외화표시채무/정부채무
대외지급·채무 (External Payments and Debt)	경상환율, 실질실효환율, 단위노동비용지수, 경상수지, 경상수지/GDP, 총외채잔액, 단기외채/총외채, 총외채/GDP, 총외채/총수출, 총외채 이자지급액, 총외채 원금상환액, 순FDI/GDP, 순대외투자포지션/GDP, 외환보유액, 국내은행 순외화자산
통화·유동성 및 대외취약성(Monetary, Vulnerability and Liquidity)	M2 증가율, 단기이자율, 국내여신증가율, 국내여신/GDP, M2/외환보유액, 총외채/외환보유액, DSR, 대외취약성(=[단기외채+장기외채+비거주자 장기외화예금]/외환보유액), 유동성(=단기부채/총자산: BIS), 총부채/총자산(BIS), "Dollarization" 비율(=총외화예금/총예금: 국내은행), "Dollarization" 취약성(=[국내은행 총외화예금/외환보유액]+국내은행 외화자산)

자료: Moody's, Moody's Statistical Handbook, Nov. 2004.

&lt;표 4&gt; Moody's의 정성분석 평가요소

평가분야	평가요소
제도적 체계 (Institutional Framework)	정치구조, 사회계약, 경제구조·정책, 사회적 구성요소·행태
재정상황 (Budgetary Performance)	사회정치적 실행 가능한 경제정책과 그 영향
정치동향 (Political Dynamics)	경제성장을 위한 정치구조, 정부의 부패정도와 효율성, 주변국과의 관계, 국제기구 가입상황, 정치적 변화 대처능력
경제적 기초여건 (Economic Fundamentals)	자원개발 현황, 수출·수입의 구조적 특성, 국제자본 유출입동향, 경상수지 악화 대응능력
채무현황 (Debt Profile)	외채상환부담, 단기외채 구조·추이, 금융지원 수혜 가능성

자료: www.moody's.com

### Ⅲ. 국가위험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기법

국가위험 전문평가기관은 기관별 고유 업무가 있지만 별도로 국가위험 평가 관련 전문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EIU, PRS(Political Risk Service), 유로머니(Euromoney), II (Institutional Investor), BERI, JCIF, JBRI 등이 이에 해당된다. 2000년대 들어 특히 OECD의 국가위험도 평가결과와 그 인지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OECD 회원국의 공적 수출신용기관(ECA)은 1998년부터 OECD 수출신용회의에서 국가위험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평가등급을 공개하고 있다. S&P, 무디스 등은 민간 신용평가기관으로서 자본시장에서 정부 채권 발행등급을 공개하고 있는 반면, OECD는 공적 신용평가기관으로서 직접대출, 리파이낸싱,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신용보험과 같은 수출신용시장에서 적용되는 최저 프리미엄 요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97년 6월 OECD 수출신용협약 참가국그룹(Group of Participants to Arrangement on Guideline for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이 “공적수출신용에 관한 프리미엄 적용지침”(Knaepen Package)을 합의함에 따라 OECD 수출신용협약 참가국 수출신용기관은 수출신용 프리미엄(보험료, 보증료 및 대외 위험수수료)을 적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르면, 최저 프리미엄 요율(Minimum Premium Rate: MPR)은 국가신용위험(Country Credit Risk)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1998년부터 OECD 무역국(Trade Directorate) 수출신용과(Export Credit Division)가 주관하는 국가신용위험 평가전문가(Country Risk Experts: CRE) 회의를 통해 최저 프리미엄 요율이 결정되고 있다.

OECD의 평가방법은 정량방식(CRAM)과 정성방식(CRE 회의)을 혼용하고 있다. OECD는 이들 방식을 동시에 진행시키지 않고 평가대상국에 대한 국가위험도 평가모델(Country Risk Assessment Model: CRAM) 결과를 수출신용기관에 대해 CRE 회의 개최 이전에 배포하고 CRE 회의에서 국가신용위험을 결정한다. 정량방식의 평가요소는 수출신용기관의 수출신용 거래관계(Payment Experience), 당해국의 외채상황(Financial Situation), 거시경제상황(Economic Situation) 및 체제전환경제(Transition Economy)<sup>11</sup> 분야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반영된다. 2006년부터는 EU 가입여부(Membership)에 대한 추가적인 터미변수를 감안하여 평가대상국이 EU에 가입한 경우 국가위험 평가모델 점수가 상당부분 하락(개선)하여 위험수준이 낮아지는 결과(등급 상향조정)를 초래하고 있다. 이들 개별 평가요소(<표 6> 참조)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에 대한 관계(확률분포)를 고려하여 분야별 평점을 산출한다.<sup>12</sup> 도출된 CRAM의 종합평점에 따라 <표 7>과 같이 8개의 모델등급으로 분류된다.

<sup>11</sup> 체제전환지수(transition index values)를 4단계로 구분하여 산출된 체제전환경제에 대한 모델평점(transition factor score)을 추가적으로 반영함.

<sup>12</sup> CRAM 종합평점 = Max[wps, (wfs+wes+wts)]

<표 6> OECD CRAM의 평가요소 가중치

위험지표		평가요소	가중치(%)
ECA의 거래관계	단기거래	• 연체/승인실적	50
		• 손해배상/승인실적	50
	중장기거래	• 연체/승인실적	20
		• 손해배상/승인실적	20
• 리스케줄링 이후 연체/승인실적		15	
• 리스케줄링 이후 손해배상/승인실적		15	
		• 리스케줄링 상환실적	30
외채상황		• 총외채/수출, 총외채/GDP	45
		• DSR, 단기외채상환부담/수출	45
		• 외환보유액/수입	10
거시경제상황	성장잠재력	• 저축률	15
		• 투자율	15
		• 1인당 GDP의 실질성장률(단기)	10
		• 1인당 GDP의 실질성장률(중장기)	10
		• 1인당 GNP	25
		• 제조품 수출비중	15
		• 수명	10
	경제정책성과	• 소비자물가상승률	30
		• 재정수지/GDP	20
		• 경상수지/수출	50
경제취약성	• 무역구조의 취약성(소규모경제)	50	
	• 수입의 원조자금 의존도	25	
		• 공적자금 유입 비중	25

자료: OECD, *Manual for the Country Risk Assessment Model(CRAM)*, July 24, 2002.

<표 7> OECD CRAM의 종합평점에 따른 모델등급 분류기준

종합평점(total risk score)	모델등급(risk category)
0~9%	0
10~19%	1
20~34%	2
35~49%	3
50~64%	4
65~79%	5
80~89%	6
90~100%	7

자료: OECD, *Manual for the Country Risk Assessment Model(CRAM)*, July 24, 2002.

OECD는 연간 135개국 내외<sup>13</sup>을 유럽, 아시아, 중남미 및 중동·아프리카의 4개 지역을 분기별로 평가하고 있는데, CRE 회의를 개최하기 이전에 수출신용기관은 <표 8>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평가대상국에 대한 모델등급 조정 평가서(written proposals)를 제출한다. 수출신용기관은 평가모델에 반영되지 않는 사항(정치상황 등)을 중심으로 <표 8>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 대상국별로 기술한다. 모델등급 조정의 경우 하향조정은 7등급까지 가능하나, 상향조정은 한 등급으로 제한되고 있다. 개별 ECA가 제출한 모델등급 조정 평가서를 기초(starting point)로 CRE 회의가 개최된다. 회의 진행방식은 대체로 평가대상국에 대한 개별 ECA의 등급 제안으로 시작되며 의장의 주재 하에 모델등급이 조정되는 절차를 거친다. 모델등급의 결정을 위한 토론은 원칙적으로 만장일치의 방식에 따라 진행되나 대부분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consensus building approach)를 통해 국가신용위험을 0, 1, 2, 3, 4, 5, 6, 7 등급의 8단계로 결정된다.

<표 8> 모델등급 조정 평가서 제출내용

평가요소	조정사유
금융외환위험(Financial Risk)	• 금융외환상황을 추가적으로 반영할 만한 위험
경제정책(Government Policy)	• 모델등급에 반영되지 않은 정부의 경제정책상 위험
소요위험(Turmoil Risk)	• 모델등급에 영향 줄만한 정치사회적 위험(전쟁, 폭동 등)
기타(Others)	• 기타 국가신용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자료: OECD, *Manual for the Country Risk Assessment Model(CRAM)*, July 24, 2002.

## 2. PRS(Political Risk Service)

미국 뉴욕의 PRS(The Political Risk Service Group)는 1947년 설립된 국제 금융정보 서비스회사로서 1980년 7월부터 “ICRG(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를 매월 발행하여 140개국에 대하여 국가위험 수준을 평가한다.

<sup>13</sup> OECD 고소득국을 제외하여 2개 이상의 OECD ECA 신용승인(commitment)이 1천만 달러 이상인 국가를 평가 대상국으로 선정함.

PRS는 전통적인 국가위험 평가기관으로서 특히 정치적 위험 분야를 강조하고 단순히 설문조사에 기초를 둔 평가방식보다는 고유의 평가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ICRG의 평가방법은 내부 평가전문가가 평가대상국의 정치적 위험(Political Risk: PR), 경제적 위험(Economic Risk: ER), 외채관리 위험(Financial Risk: FR) 등 3개 분야에 대한 위험점수를 가중 평균하여 종합평점(Composite Risk Rating) 및 평가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3개 분야의 위험점수를 가중 평균하여 종합평점을 산정한 후 5단계<sup>14</sup>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종합평점은 <표 9>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3개 분야의 위험점수를 합산한 값의 50%를 적용하여 산출되며, 종합평점은 0~100점으로 부여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 수준이 낮은 국가(신용등급이 높은 국가)이다. 즉, 종합평점이 0~49.9점은 초고 위험국, 50~59.9점은 고위험국, 60~69.9점은 중위험국, 70~79.9점은 저위험국, 80~100점은 초저위험국으로 분류된다. 또한 평가전망을 1년과 5년으로 나누어 최악의 경우(Worst Case Forecast)와 최상의 경우(Best Case Forecast)로 구별하여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종합평점을 부여한다.

ICRG에 나타난 평가요소에서 정치적 위험(12개 평가요소)에 대한 가중치가 외채관리 위험(5개 평가요소) 및 경제적 위험(5개 평가요소)에 대한 가중치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 정치적 위험지표 중 정권 안정성, 사회경제적 여건, 투자 실적 및 대내외 갈등이 상대적으로 가중치가 높고, 외채관리 위험 및 경제적 위험에 대한 평가요소에서는 경상수지/수출, 경상수지/GDP에 대해 높은 가중치가 부여되고 있다.

---

<sup>14</sup> Very High Risk, High Risk, Moderate Risk, Low Risk, Very Low Risk

&lt;표 9&gt; PRS의 국가위험 평가요소

위험지표(가중계수)	평 가 요 소	가중치(%)
정치적 위험(PR: 50%)	• 정권 안정성	12
	• 사회경제적 여건	12
	• 투자위험도	12
	• 국내 갈등	12
	• 대외 갈등	12
	• 부패 정도	6
	• 군부의 정치개입	6
	• 종교계의 정치개입	6
	• 법·질서 준수	6
	• 인종적 긴장상태	6
	• 민주화의 정도	6
	• 관료 수준	4
경제적 위험(ER: 25%)	• 경상수지/GDP	15
	• 실질 GDP성장률	10
	• 소비자물가상승률	10
	• 재정수지/GDP	10
	• 1인당 GDP	5
외채관리 위험(FR: 25%)	• 경상수지/총수출	15
	• 총외채잔액/GDP	10
	•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	10
	• 환율 안정성	10
	• 외환보유액/수입(개월)	5

$$\text{종합평점(CPFER)} = 0.5 \times (\text{PR} + \text{FR} + \text{ER})$$

자료 : PRS, 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Sep. 22, 2004.

### 3. 유로머니(Euromoney)

영국 런던의 Euromoney는 1982년부터 185개국을 대상으로 국가위험 평가순위를 국제금융 전문지(EUROMONEY)를 통해 연2회(3, 9월) IMF 정기총회에 즈음하여 발표하고 있다. Euromoney의 평가기법은 분석지표, 신용지표 및 시장지표에 관한 9개 항목의 평가요소에 각각 5%, 10%, 25%의 가중치를 부여한 후 <표 10>의 산출방식에 의해 종합평점을 도출한다. Euromoney의 평가요소에

인용되는 자료들은 선도적인 20여개의 금융기관 및 경제연구소의 경제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평가 대상국의 평가년도와 차기년도의 경제상황에 관하여 평가한다. 대체로 경제운용 실적이 양호한 국가일수록 종합평점(0~100점)이 높게 나타나며 종합평점에 따라 평가대상국을 10개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 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Euromoney는 국가위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경제성과 및 정치적 위험에 관한 분석지표를 중요시하며, 세부적으로는 경제성장 전망, 통화 안정성, 경상수지, 재정수지, 실업, 경제구조의 불균형과 대외 지급불능 위험 및 자본송금불능 위험 등을 강조하고 있다.

<표 10> Euromoney의 국가위험 평가요소

위험지표	평가요소	가중치(%)	평 가 자 료
분석지표 (50%)	정치적 위험	25	수입대금지급, 채무상환, 무역금융, 배당의 지급불능 및 자본송금불능 위험
	경제성과	25	경제성장 전망(t+1,t+2), 통화 안정성, 경상수지/GDP, 재정수지/GDP, 경제구조 불균형(실업)
신용지표 (20%)	외채지표	10	총외채잔액/GNP+(DSR×2)-(경상수지/GDP×10)
	외채상환	10	최근 3년간 디폴트 및 리스케줄링
시장지표 (30%)	신용등급	10	무디스, S&P 및 피치의 등급 평균
	금융시장	5	GNP대비 민간, 장기, 무보증 대출의 비중
	단기금융시장	5	OECD(합의그룹), 수출입은행(미) 등의 인수여부
	자본조달시장	5	기채 용이성(채권발행, 신디케이트론)
	forfeiting	5	평균 최대신용기간 및 가산금리(국제투자은행)

종합평점 = 가중치 × [(산출점수-최저점수)/(최고점수-최저점수)]

자료 : Euromoney, EUROMONEY, March 2004.

#### 4. II (Institutional Investor)

미국 뉴욕의 Institutional Investor(II)는 1979년부터 170여 개국을 대상으로 연2회(3,9월) 국가위험 평가결과를 국제금융 전문지(Institutional Investo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유로머니와 마찬가지로 국가별 평가순위가 국제금융시장에

서 해당국의 장단기 채권 발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II의 평가기법은 자체적인 평가 담당자에 의하지 않고 75~100개 국제금융기관, 종합금융회사 및 경제학자에 대한 설문조사 방식을 취하고 있다. 설문조사로 평가대상국의 정치경제동향, 외채현황, 국제금융시장 조달실적 등에 관한 평가를 집계한다. II는 설문조사 평가자의 응답에 대한 별도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특이한 평가방식을 보유하고 있다. 즉, 평가자 소속 금융기관의 위험노출자산이 많고 정교한 국가위험 분석 체계를 보유한 기관일수록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2010년 9월 기준으로 178개국의 평가대상국에 대하여 0~100점(채무불이행 가능성 최저 또는 최적의 투자가능 국가 해당)으로 산출된 평점을 기준으로 신용평점 및 평가순위가 결정된다.<sup>15</sup>

II는 경제개혁 및 정책투명성 제고(외채통계), 자본유입 증가, 건전한 재정·통화정책 시행(금융규제 강화), 재정수지 및 국제수지 개선(외환보유액 증가) 등에 대하여 중점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11> II의 국가그룹별 설문조사 중요도 순위비교

평가요소	국가그룹별 중요도 순위		
	OECD 회원국	신흥투자국	기타
경제전망	1	3	4
외채상환	2	1	1
외환보유수준·경상수지	3	4	3
재정정책	4	7	6
정치전망	5	2	2
자본조달시장	6	9	9
상품수지	7	5	5
포트폴리오투자 유입	8	8	8
외국인직접투자(FDI)	9	6	7

자료: Michel Henry Bouchet et al, Country Risk Assessment, 2003, p.104.

<sup>15</sup> 유로머니와 마찬가지로 종합평점이 높을수록 국가위험 수준이 낮은 국가(신용등급이 높은 국가)를 의미함.

#### IV. 요약 및 결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위험 평가에 관한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되면서 S&P, 무디스 등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조정에 대해 각국은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정부채권 평가기관 이외에도 OECD, PRS 등 국가위험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기법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위험 수준을 보다 정교하게 그리고 시의 적절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S&P, 무디스 등의 정부채권 평가기관은 회사채 평가 이외에 추가적으로 외화표시 장기 정부채권을 평가하기 위해 45~50개 경제지표에 대한 정량평가와 더불어 경제분야 등에 대한 질적인 분석을 통해 정성평가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정확도 및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보다 세련된 평가기법 구축 등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로존 재정위기 발생 등으로 인해 EU 등도 별도의 신뢰할 만한 신용평가기관 설립을 구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위험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기법을 추가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OECD는 공적 신용평가기관으로서 비교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공적 수출신용기관의 국가위험 평가전문가회의를 거쳐 최종 평가등급이 결정되므로 평가 신뢰성도 제고될 수 있다. 또한, PRS는 자체적인 평가모델을 통해 종합점수를 산출하고 있으며 정치적 위험에 대한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강점을 보유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국가위험 평가기법과 관련하여 정부채권 및 국가위험 전문평가기관 이외에 개별 연구자들의 연구문헌도 참고할 만하다.<sup>16</sup>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도 Reinhart/Rogoff(2003)는 1979~2000년 53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위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변수로 소비자물가상승률, 리스케줄링 빈도, 총외채잔액/GNP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특히, Reinhart/Rogoff(2009)는 지난 800년간의 경제위기 사례를 조사하면서 특정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를 초과하거나 정부채무/GDP 비중이 90%를 상회할 경우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조양현(2010a)은 그리스

<sup>16</sup> 본고에서는 주요 정부채권 신용평가기관과 국가위험 전문평가기관에 대해서만 고찰함.

등으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의 요인분석 결과, 경제성장률, 재정수지/GDP, 경상수지/GDP 및 실질실효환율이 유로존의 경제위기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제변수로 평가하고 있다. 이들 개별 연구자들의 연구문헌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분석체계는 정부채권 평가기관과는 달리 일부 중점평가요소(principal components)만으로도 충분한 국가위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45~50개에 달하는 정량평가 경제변수를 반영하는 S&P, 무디스의 평가기법은 사전적 관점에서 경제위기국을 예측 또는 전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과다변수의 과소사례에서 발생하는 평가기법의 적실성 문제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S&P, 무디스의 평가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제기되거나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최종적으로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긴급 구제금융 지원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나서 사후적으로 경제위기국에 대한 등급 하향조정을 한 사례가 너무나 빈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점평가요소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질적인 분석 등을 통한 국가별 정성분석 방식을 구축하는 방안이 보다 정교한 국가위험 평가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OECD도 기본적으로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OECD의 국가위험 평가모델(CRAM)은 1980년대 중남미 외채위기, 1990년대 동남아 외환·금융위기에 대한 경제위기 사례 정도만 반영했기 때문에 2000년대 이후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적정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요컨대, 국가위험 수준을 얼마나 잘 평가하느냐 하는 문제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경제위기 발생 이전에 정확한 수준의 평가기법을 제시한 평가기관이나 개별 연구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나아가 특정 경제위기국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위험 수준에 대해서 보다 신뢰할 만한 국제적인 평가기관이 설치되거나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선진권 경제 편입을 앞두고 보다 선진화된 국가위험 평가기관 설립 또는 기존의 평가기관<sup>17</sup>을 활용한 보다 정교한 평가연구 체계 확립 등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김용진. 2004. “비교지역연구에 있어서 교차사례적 측정지표의 타당성: 사례별 등가 지표의 구축전략”.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2집 2호. 한국세계지역학회.
- 조양현. 2010a. “유로존 재정위기와 국가별 위험수준 평가: 그리스 재정위기를 중심으로”. 산업이슈분석 2010-2.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조양현. 2010b. “유로존 재정위기 현황과 국가위험 전망: 아일랜드 재정위기 이후의 국가위험 수준 평가”. 산업이슈분석 2010-23.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Bouchet, Michel Henry *et al.* 2003. *Country Risk Assessment*, Wiley. West Sussex. England.
- Frenkel, Michael *et al.* 2004. *Sovereign Risk and Financial Crises*. Springer. Heidelberg.
- Hostland, Doug and Philippe Karam. 2006. “Specification of a Stochastic Simulation Model for Assessing Debt Sustainability in Emerging Market Economies”. *IMF Working Paper: WP/06/268*. www.imf.org.
- Hoti, Suhejla and Michael McAleer. 2005. *Modelling the Riskiness in Country Risk Ratings*. ELSEVIER. Amsterdam.
- Lijphart, A. 1971. “Comparative Politics and the Comparative Method”.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53, No.3.
- Mecagni, Mauro. 2006. “The Level and Composition of Public Sector Debt in Emerging Market Crises”. *IMF Working Paper: WP/06/186*. www.imf.org.
- Reinhart, Carmen M. and Kenneth S. Rogoff. 2009. *This Time Is Different: Eight Centuries of Financial Fol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USA.
- Euromoney. Sep. 2006. *EUROMONEY*. www.euromoney.com.
- Fitch. June 2006. “Sovereign Ratings: Rating Methodology”. www.fitchratings.com.

---

<sup>17</sup> 우리나라 유일의 최대 국가신용도 평가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국별조사실)는 1976년 한국수출입은행 설립 당시부터 평가업무를 시작하여 현재 OECD CRE 회의에 우리나라 정부대표단, 구체적으로는 수출신용기관(ECA) 대표로 참여하고 있음.

- Global Insight. Dec. 2006. "Sovereign Risk - Methodology". [www.globalinsight.com](http://www.globalinsight.com).
- IMF. July, 2004. "Debt-Related Vulnerabilities and Financial Crises-An Application of the Balance Sheet Approach to Emerging Market Countries". [www.imf.org](http://www.imf.org).
- IMF. October 2010.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Sovereign, Funding, and Systemic Liquidity". [www.imf.org](http://www.imf.org).
- Institutional Investor. Sep. 2006. Institutional Investor. [www.institutionalinvestor.com](http://www.institutionalinvestor.com).
- Moody's. Feb. 2004. "Moody's Rating Methodology Handbook". [www.moody's.com](http://www.moody's.com).
- Moody's. June 2004. "Guide to Moody's Ratings, Rating Process and Rating Practices". [www.moody's.com](http://www.moody's.com).
- Moody's. Nov. 2004. "Moody's Statistical Handbook". [www.moody's.com](http://www.moody's.com).
- OECD. 2006. *Manual for the Country Risk Assessment Model (CRAM)*. [www.oecd.org](http://www.oecd.org).
- OECD. 2010. *Arrangement on Guidelines for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www.oecd.org](http://www.oecd.org).
- PRS. Sep. 2006. *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the PRS Group Inc, New York.
- [www.euromoney.com](http://www.euromoney.com).
- [www.institutionalinvestor.com](http://www.institutionalinvestor.com).
- [www.moody's.com](http://www.moody's.com).
- [www.standardandpoors.com](http://www.standardandpoors.com).